JAN 2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31 1982년1월2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anuary 2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통일에 획기적 새 제의
통일헌법, 협의회의, 남북관계 잠정협정
전대통령, 국정연설서 북의 호응촉구

22일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82년 국정연설에서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설치를 제안하는등 구체적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전대통령은 이번제의에서 ①「통일헌법」을 만들기 위한 「민족통일협의회」구성, ②「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 ③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 각료급 대사교환의 3대골자로 집약되는 제안을 북한측에 했으며, 과거 어느때보다도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전대통령은 통일문제에 언급, 남북한 통일은 민족자결 원칙에 의거 겨레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에 관한 전대통령의 국정연설중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일헌법 마련 위한 협의회의

평화통일 성취의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 민족적 화합을 이룩, 민족 전체의 통일의사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 그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 시켜야 한다.

이 통일헌법 마련을 위해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 구성을 제의한다.

따라서 통일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남북 쌍방은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정상관계로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①쌍방은 통일국가 수립시까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②쌍방간 분쟁해결에 무력·폭력 사용이나 위협은 지양, 모든 문제의 상호대화·협상(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을 모색한다.

③쌍방간 현존 정치질서·사회제도 상호인정및 상대방의 내부문제에는 일절 불간섭한다.

④한반도의 긴장완화·전쟁방지를 위한 현존체제유지, 군비경쟁의 지양·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조처를 협의한다.

⑤분단으로 인한 민족고통·불편해소및 민족적 신뢰와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호교류·협력으로 쌍방간 사회적 개방의 추진. —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포함,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다각적 교류 촉진을 가능케 하는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으로 민족의 이익증진에 쌍방간 구체적 노력을 쏟을 것.

⑥쌍방은 통일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 없이 세계 모든 나라들과 자기 체결한 쌍무적및 다자(多者)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 민족의 이익문제는 서로 협의할 것.

⑦쌍방은 각료급 전권대사를 임명,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쌍방협의로 그 임무확정.

끝으로 전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각료급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쌍방의 실무대표단간 예비회담을 개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 실현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전 두환 대통령>

우대금리 16.5% 모기지율 16~20%
82 경제전망
실질임금 인상 평균주급 $398

작년 한햇동안 고금리에 시달려온 캐네디안들은 금년은 물론 내년도까지 높은 이자율에 허덕여야 될 것같다. 반면 임금생활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상의 봉급 인상 혜택을 받을 것 같다.

모기지알선인들은 금년에 시기를 잘 맞추어 연리 16%의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말쯤 모기지를 얻어야하는 사람들은 20%이상의 고금리를 물어야 될 것같다고 했다.

모기지를 알선하는 스털링신탁회사의 잭·매크레디 부사장은 "내년 이때쯤은 아마 18%의 모기지도 괜찮은 편으로 간주될것" 이라고 21일 말했다.

금융전문가들은 금년도 모기지대부율을 16~20%로 예상하고 21일 현재 주요 캐나다은행에서 적용하는 프라임레이트(최우선고객우대금리) 16.5%가 81년도 내내 계속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경제위원회는 이와 같은 고금리의 영향이 캐나다경제를 어둡게 하지만 봉급생활자는 인플레이션률이상의 임금인상을 받게 될것으로 내다봤다.

이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봉급생활자의평균주급은 81년도에 $354였으나 82년에는 12%가인상 1주당 $398이 될 것이다.

82년의 물가인상폭을 10.5~11%로 잡고있는 이 위원회는 따라서 임금생활자들의 실질임금은 77년이래 최초로 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가 밝힌 82년도의 경제생활 주요예상은

○미국의 물가 인상폭은 3년 계속 10%미만일것이며

○캐나다 유류인상폭은 20%선이고

○식료품비 인상은 10%에 그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81년의 12.5%에서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통령 국정연설 해설>

평등한 상호교류·통일위한 헌법기초
북의 통일전제—미군철수등 어거지

(서울22일=연합통신)

전대통령은 1년전 주창한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북한측의 냉랭한 반응을 얻자, 분단한국의 통일을 위한 새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22일 국회에서 발표된전대통령의 국정연설중에 포함된 통일에 대한 제안으로 통일한국을 위한 헌법기초및 평등과 상호교류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체결을 제의했다.

이같은 새 제안은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기대하고 준비된 것으로 서울—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에서 고위층 대표들을파견, 회담을 갖자고도 했다.

이번 제안은 한마디로여러해 동안 한반도문제에대해 서울측 해결방법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새제안은 73년6월의 평화적통일에 대한 특별대외정책 성명, 74년 1월의 남북한 불침략 제안, 평양측의 침략적 과격한 통일방법에 대응, 74년8월의평화적 통일을 위한 3대주요원칙등에서 윤곽이 드러난 한반도문제에 대한 서울측의 점차적해결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우선조건으로 먼저 남북간에 지속된 평화가 수립되어야하며 상호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측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전제이다.

또 이번 제안은 급격한 변화 없이 궁극적 통일로 이끄는 4번째의 구체적 단계를 만들었다.

새 제안은 무력사용을거부하며, 민족자결과, 전 한국인의 자유로운 의지에따라 한국문제의 민주적,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이것은 또 남북한 사이의 군비경쟁과 군사대치의 종결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서울측 제안을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및 개인의 복리사상을 지지하는 완전통일된 한국의 수립을 추구하는 반면, 평양측은 연방국가라는 가면 아래 2개의 한국이 존재하는 불완전한 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분명히 연방국가의 창조에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데 있다.

이같은 북한의 속셈은 남한의 반공정부를 공산주의에 동조적인 것으로 대치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남북한반도에 연방국가 설립을 위한 회담을 하기 전에 남한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를 극력 주장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78년3월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한 북한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번 제안은 북한이 종전과 같은 구실로 일축하기는 어려울 것같다.

◁금주의 행사▷

(1월25일 ~ 31일)

◇1월29일(금)~31일(일) 브랜튼 스포츠·한국일보사 스키강습 곳 : 퀘벡주 「세넹」산
연락처 : 598-3732

◇1월29일(금) 하오6시 벡커프렌차이스협회 신년파티
곳 : 프린스호텔(900 York Mills Rd.)
연락처 : 755-3632(김병진)

◇1월30일(토) 상오8시15분~하오5시30분
Y.초보자 스키강습
곳 : Snow Valley 스키장
연락처 : 536-1166(YMCA.)

◇1월30일(토) 하오7시 베타와이즈멘즈클럽 모임
경제강연—최승락(외환은행장)
곳 : 홍승규씨댁
(2469 Hammond Rd. 822-3163)

社說 미소 전파
—「교포 단합의 해」제창

밝아온새해 임술년은「4만교포단합의 해」로 제창한다.

이땅 한인이민사 20년에 토론토를 비롯하여 몬트리얼, 퀘벡, 뱅쿠버, 에드몬톤 칼가리, 위니펙, 런던, 해밀턴… 그밖에도 여러 군소도시에 한인들이 산재하여 캐나다 전국의 우리교포수는 4만여로 추산되고있다.

모국을 떠나 해외멀리떨어져 살수록 무엇보다먼저 인력(引力)을 느끼는 것은 핏줄이요 겨레임은 이민자 어느누구도 한결같이 절감하는 터이다. 「인연」이란 그토록 숙명적으로 강한것이다.

유구한 세월속에서「시간」이라는 기나긴 열차의 파정의 간이역들처럼 한「에퍽」(Epoch—시기)을 긋는 것이 인위적 달력이요, 그래서 송구영신(送舊迎新) 해마다 묵은것은 가고, 새것이 오곤한다.

이민사 20년이면 우리한인사회도 개척기를 지나, 정착기도 중반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각자가 시선을 자기발등에서 높이들어 주위를 둘러보고 관심파온정을 우선 한 핏줄 이웃에게로 돌릴때가 왔다고 보겠다.

나아가 우리의 액션을 Step by Step(단계적) 으로 이땅의 타민족들 에게까지 뻗쳐, 빛다운 존재로 드솟을 시기도 다가오면서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생활양상, 사고방식등 저마다 다른인간집단이 서로 어울려살고 있는 것이 사회여서 단체대 단체간에, 개인과 개인사이에, 혹은업자와 고객의 거래관계등에서 때로 불미로운 잡음이나 불협화음이 없을수 없겠으나, 이제는 우리들도 그같은 소아병적 근시안에서탈피하여 문화민족(대국민)다운 긍지와 포부를 지니고, 우선 동족에게 미소를 옮겨싣는 마음자세를 굳히고, 저마다 잡음빚지 않기로 결심하며, 진취적 삶에서 솔선하여 잡음의 예방에 힘을 모은다면 우리한인사회는 얼마나 밝고 명랑한, 「이민낙토」로 발돋음하겠는가!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명심코 순수해야할 일이있다. 신의를 저버리는 짓, 배신은 인종지말(人種之末) 이나 저지르는 저차원의 소행이다. 또한 피해망상이나 이기욕에 사로잡혀 이웃을 지나치게 이용하려들거나 적대시하기보다 우리들 서로가 신의를 굳건히 지키고, 호양(互讓)의 정신에 철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거기 유토피아(이상향)는 실현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세상만사 마음먹기 탓"이라 하였으니, 「남을 네몸같이 사랑하라」신 성경귀절을 들먹일것도 없이 우리교포모두가 겨레를 제식구 같이 친형제같이 존중하고 위한다면 이민낙원건설은 결코 불가능한일이 아니다. 그같은 풍토가 조성되면 그 파동이 선의 광파(善光波)처럼 번져, 이 나라 사회에서 한민족은 남들이 우러르는 도도록 높은 민족으로 빛나게 존재할 것이며 아울러「이민 저마다는 민관외교관」이라는 소임도100% 다하는 셈이될 것이다.

우리한인사회의 객관적 상황이 그쯤 이르르면 우리들은 서로간에 얼마나흐뭇하겠으며, 행복감 또는그 얼마나 충일하겠는가!

이것은 새해의 「비전」이 아닐수 없다. 곧 올해의 이땅 한인전체의 표어는 「교민 단합의 해」로 삼기를제창하는 바이다.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자면, 묵은 얘기이나「일일일선(一日一善)」이란 금언대로 4만교포 각자가 매일 한가지씩 단체를 위해서건 교포 개인을 상대해서건선한 일(봉사)을 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이를 착실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에 옮긴다면 1982년을 마감할 무렵에는 우리의 염원대로 이땅 한인사회는 문화적으로, 또한 온갖 부문에서놀랍도록 향상될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단체간의 알력이나 개인간의 얽힌 감정·이해상반(利害相反)등도 한발씩 물러서서 사리(事理)대로 검토하고 냉철한 이성의 판단을빌어, 서로가 관대히이해하고 양보하는 아량(미덕)을 보인다면 인간대 인간의 그아무리 험난한 문제라도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우리의 공기는 훨씬 맑아지고, 살기좋은 사회로 변질될 것이다.

남에게 미소를 옮겨주는 이, 그는 정녕 진복자인저.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오.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54 BLOOR ST. W. (Bloor & Bathu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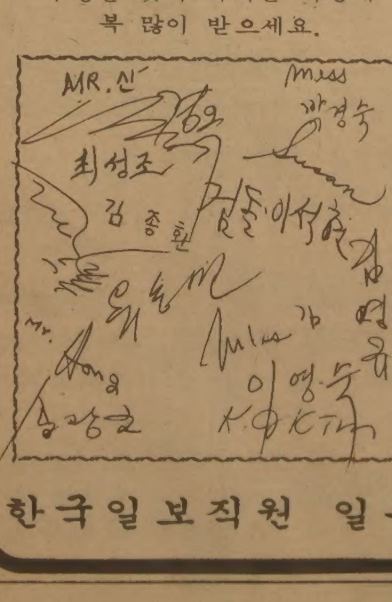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舊正
구정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일보직원 일동

춘계 대방매
(NORITAKE DINNER SET)
*토론토 내에서 EATON'S와 SIMPSON'S 그리고 저희 AMIK 세곳에서만 특별히 작년 가격으로 재고가 떨어질때까지 판매하고 있읍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작년세일가격+5% OFF 합계 작년가격의 35% OFF이니 가격 비교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서 구매 하세요.
*기타 많은 NORITAKE제품 세일 중입니다. 일차 왕림 하시어 무엇을 싸게파는지 구경오세요.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과Sheppard의 Sheppard Centre내)
전 화 : 221-5990 Mrs. 고

중앙 동창회
구정 파티
보고싶은 중앙동창회원 여러분! 구정을 맞이하여 정기총회겸 구정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1월30일(토)밤10시
장 소 : 한 국 관
연락처 : 박홍일 651-8511
중앙동창회장
김 대 일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씨 살인범 유죄인정
범인 4명 모두 기소

◇생전의 이봉재씨

80년 9월15일밤 데븐포트로드와 옥운·애비뉴에있는 빅스·밀크스토아에서이봉재씨(당시 39세)를 권총으로 쏘아 숨지게한 범인일당중 하나인 19살 허먼·대니엘·워커가 22일 법정에서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먼저 기소된 2명의 범인들은 이에 앞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제4의 공범인21살 클립톤·올리버·스튜아트의 재판이 있은 뒤 범인일당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일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유죄를 인정한 허먼은 자메이카인으로 캐나다에 불법체류해왔다.

재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심리학자 앨런·롱은 워커의 지능지수가 7살난 어린애의 정도밖에 안되며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저능아로 범행당시 자신이 어떤 일에 가담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건당일 워커는 이미유죄를 인정한 주범 에롤·앤토니·파커(20)와 마이클·조지·루낸(20)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게안에 들어가 범행하는 동안 밖에서 망을 보았었다.

이봉재씨는 사건당시 빅스밀크가게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범인 들은 이날밤 11시30분께 가게를 보던 이씨의 부인 홍신득씨(36)에게 돈을 달라고요구했다. 범인은 9밀리 자동 후거권총으로 소란속에 달려나온 이씨의 가슴에 1발을 발사한 뒤 도주했다.

출혈이 심한 이씨는 경찰차에 실려 병원에 급거 옮겨졌으나 이날 12시45분 사망했다.

숨진 이씨는 부인과 친지, 교민등 1백여 조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18일 홀리·크로스 성당묘지에 안장됐다.

제주—일본·대만 항공노선
외국인,제주도방문 편의위해 계획

(서울 21일=연합) 한국교통부는 관광지로 각광받는 제주도와 도쿄및 타이페이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노선 설치를 고려중임이 21일 교통부소식통에 의해 밝혀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두 항공노선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의 제주도 방문에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것이다.

작년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수는 총 4만1천825명으로 전년도보다 104%나 증가했다. 급격한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는 한국정부가 80년11월에 외국인들이 비자없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게한 조처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한국정부가 이일로 일본과 타이완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교통부는외국 전세비행기의 제주도취항 허용도 고려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작년2월 제주시와 일본 오사까시를연결하는 항로를 개설 하고 일주에 3번 취항하고 있다.

3개디즈니랜드 건설계획
한국, 성남·경주·용문에

(서울 21일=연합) 한국정부는 3개의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맡을 건설회사를 지명했다.

교통부 관리들은 21일이, 3디즈니랜드의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근처「방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기슭및 경북 경주시의 보문호수 유원지 맞은편 언덕기슭이라고 밝혔다.

170만 스퀘어미터(sq.m)의「방요 디즈니랜드」는극동건설에서, 660만sq.m의「용문 디즈니랜드는 」 명성그룹에서, 200만sq.m의「보문 디즈니랜드」는 봉명그룹에서 각각 맡아서 짓는다.

교통부와 3개 건설회사는 금년 8월말까지 설계계획을 마무리짓고, 금년안에 착공하며, 86년 아시안 게임전에 완공할 예정이다.

세계대회 참가건 토의
최승락씨 경제강연
— 베타와이즈맨즈클럽

토론토한인베타와이즈맨즈클럽(회장 이석현)은 오는 30일(토) 하오7시 홍승규 부회장댁에서 1월모임을 갖는다.

이날 다룰 주요 안건은 새해사업 계획및7월달 서울서 열리는 세계와이즈멘대회 참가건 등이다.

이날 특별강연으로 토론토외환은행장 최승락씨의 경제문제 강연, 동은행 이수신전무의 궁금풀이(질의응답)가 있으며 키치너 클럽 제공, 유럽 와이즈멘운동등 관광 슬라이드 감상도 있다.

부부동반으로 모이는 이날 행사끝에는 싱·얼롱, 빙고게임등 여흥시간도 있다.

장로교 $500
이대동창 $200
양로원 모금에

양로원건립추진 위원회(회장 천중환)의 모금운동에 호응, 한인장로교회 여신우회는 바자회 수익금중 5백달러를, 이화여대동창회는 2백달러를 회사했다.

지난 가을 모금을 위한 미술전시회를 성황리에 주최한 양로원건립위는 곧결산보고와 모금실적등을 밝힐 예정이다.

양로원건립위의 금년 회장은 천중환씨, 작년도 회장은 차선겸씨였다.

교 민 동 정

◆백효증=3년반동안 한인장로교회 성가대장을 지낸 백씨는 건강관계 (엘러지)로 지난 연말 성가대장직을 사임, 생업인 통킨인쇄소 경영에 온 정력을 쏟고 있다. 백씨는 틈틈이음악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33-2361

캐나다 헌법안 개요 ⑤

제2장

원주민들의 권리

35.(1)원주민들의 기존권리와 조약에 의해 얻어진 권리는 그대로 승계된다.

(2)캐나다의 원주민은 인디안, 이누잇, 메티스족들을 포함한다.

제3장

균등한 기회와 지역적불균형

36.(1)연방의회와 주의회는 각자의 입법권 또는 입법부로서의 권한행사에 조금도 영향을 입지 않는다.

연방의회와 주의회는 연방및 주정부와 함께 다음 사항을 공동추잔한다.

(a)국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한 기회를 균등히 갖도록 한다.

(b)기회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개발을 촉진한다.

(c)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2)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평균적으로각주가 비슷한 수준의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도록주정부를 보조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제4장

헌법위원회

37.(1)연방수상과 주수상들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는 본 개정안 발효 1년이내에 연방수상에 의해 소집된다.

(2) (1)항에 의거, 소집된 위원회는 원주민들에 직접 관계되는 헌법상의 문제도 의제로 포함한다.

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될 원주민들과 그들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내린다. 연방수상은 이 회의에 원주민 대표들을 초청, 참석시 킨다.

(3)연방수상은 (1)항에 의거한 헌법위원회 회의가유콘(Yukon)및 서북부통치지구(노스웨스트·테리토리 : 연방정부 직접통치함)에관한 사항을 토의할 때 이지역의 민선 대표들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장

헌법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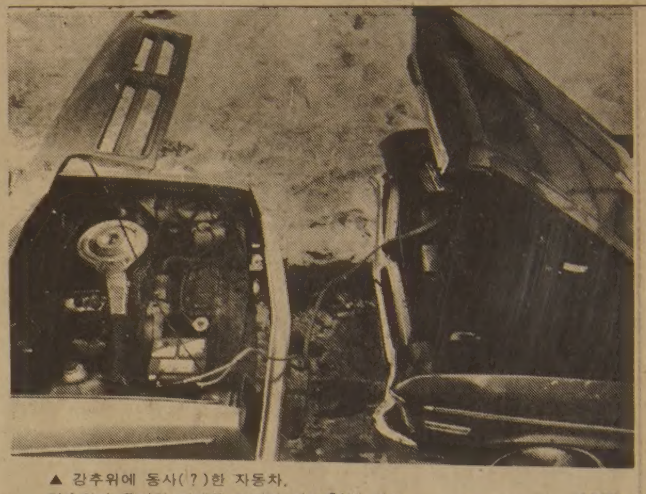
38.(1)개정헌법은 캐나다총독의 선포로 발효한다. 총독은 (a)상하원의 결의가 있을 때 (b)10개주의회2/3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이 주의회들은 국민 총인구의 50% 이상을 대표해야한다.

出版社대표에 終身刑
한국,反共法위반혐의

〈서울22일-UPI〉 서울지방법원은 22일 출판사대표 이태복씨(30)에게 반공법위반혐의로 종신형을 그리고 나머지 23명에게도 1~7년까지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하용공노동연맹을 조직, 대학생및 공장근로자들을 포섭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나머지 피고들은 대학생들로 대부분 지난해 교내서 반정부시위를 벌인혐의다.


▲ 강추위에 동사(?)한 자동차.
강추위가 물러갈 기색을 보이지 않는 21일 상오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위해 밧테리·점프를 시도하는등 많은 소동을빚었다.

겨울철 자동차 상식

엔진오일 깨끗이하고 묽은오일 사용해야
밤에는 엔진·후드등을 불랑켓으로 보온토록

혹심한 추위로 인해 자동차의 시동이 안걸리는 경우에 필요한 운전상식을 몇가지 알아본다.

◉운전을 할때 추위를 이겨낼수 있도록 충분한 의복을 입는다(추위가 심하면 자동차에 각종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경우 근처 정비소나 개스스테이션에 걸어갈수 있도록 몸을 보호해야한다.장거리 여행시에는 비상용 담뇨를 휴대한다.)

◉시동을 걸때 페달을 끝까지 밟고 4~5초 기다린후 페달을 반 정도 밟은 상태에서 스윗치를 돌린다. 시동이 안걸릴때 40초이상 스타터를 계속 돌리면 배터리가 소모되거나 스타터에 무리가 가므로 20초 이내로 돌리고 1분씩 쉬는 것이 안전하다.

◉시동 스위치를 켜도 모터가 돌지 않으면 배터리 연결이 나쁘거나 배터리가 죽었거나 부동액이 얼었을수 있다. 부동액이 얼었을 경우에는 토잉을 해서 거라지안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배터리 연결점(2개의 전구와 코드 접촉)을 깨끗이 해도 시동이 안되면 배터리가 나간 것이므로 이웃이나 주유소에 연락,점프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점프를 받을때 음주(마이너스)선은 점프받는차의 배터리가 아닌 철제부분에 꽂는 것이 안전하다.

추위에 배터리의 출력이 반으로 약해질수 있으므로 3년 이상이된 배터리는 금년 같은 강추위에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배터리에 이상이 없어 모터가 돌거나 다른 차의 점프로 모터가 돌면서도 시동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료 시스템에 문제를 생각할수 있다.

◉시동을 건다고 액세레터를 너무 자주 밟아서 카브레터가 연료로 넘치면(FLOODING)플럭이 젖어서 점화되지 않는다. 이경우 개솔린 냄새가 몹시 날수 있다. 이때는 액세레터를 바닥까지 누른채 3~5분 지난후 시동을 다시 하면 카브레터가 건조되어 시동이 될수도 있다. 또는 에어클리너(냄비 같이 둥그런 장치)를 열어 카브레터의 초크를 열어 공기를 통하게 한 다음 시동을 한다.

◉또는 연료에 물기가 섞여 시동이 안될 경우 주유소나 자동차 용품상에서 인화성이 높은 「킷 스타터」「스타트 에이드」등 화학제를 사서 카브레터로 부은후 시동을 걸어도 된다. 그러나 연료에 물이 너무 많아 개솔린 탱크 바닥에서 연료펌프에 이르는 관이 막힌 경우는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리거나 토잉해서 실내 거라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연료의 물은 주유소에도 생기며 차 연료탱크 안에 찬 공기가 농축해서 물이 되어 가라앉을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울때는 연료탱크를 되도록 가득채우며 HEET 같이 물을 분해하는 화학제를 연료 탱크에 주기적으로 넣어야 한다.

◉배터리가 좋고 연료가 깨끗해도 엔진 오일이 더럽거나 점착성이 높으면 엔진이 차가울때 잘 돌지 않는다. 그러므로 엔진 오일을 깨끗이 하고 10W-40등 묽은 오일을 사용하면 안전하다.

◉추운날씨가 계속될 경우 최소 하루에 한번이상 시동한후 15분이상 엔진을 돌려 더운 기운이 차안에 퍼지게 한다.

◉자동차를 사용치않는 밤에는 엔진,후드등을 불랑켓 같은 것으로 덮어 보온하거나 오일보온용 스틱,엔진보온전구,엔진보온전기담뇨등을 부착시킨다.

한국일보
TEL : (416)533·2361

◇이언군과 나란히 올해의 선·샤인 걸로 선정된 온타리오주 빌턴출신의 킴양.올해 18세로 모델수업중인 그녀는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친절히 자동차문을 열어줄 정도로 친절하고 정이많은 남성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2월중 쇼에 출연하러 일본을 여행한 뒤 바하마로 향하겠다고.

◇토론토＊선지가 뽑은 81년도의 선샤인·보이 이언(26)군. 토론토 동쪽 비취지역에서 술집"Feathers"를 경영하고있는 이언군은 레스토랑을 하나더 오픈하는것이 소원이라고.다운타운에서 술을마시고 있는데 사진기자가 접근,우연히 선·샤인보이로 나갔을 뿐 상을탈 것으로는 기대안했다는 이언은"바하마에 갔다온지 얼마 안됐으나 다시한번 가는게싫지 않다"고.

선지는 매일 사진기자들이 그날의 선·샤인 보이와 선·사인 걸을 선정,신문에 사진을 게재하고,그달의 대표를 뽑고거기서 또 그해의 대표를 뽑아 부상으로 바하마 왕복 비행기값및 체재비를 준다.

한대의 기계로 한글과 영문을 마음대로 칠수있는

공병우 한영 타자기

$129.00

* 누구나 1분 설명듣고, 5분간 연습으로 한글을 칠수 있읍니다.
* 교본으로 하루 한시간씩 6일간 연습으로 누구나 초급 전문 타이피스트가 될수 있읍니다.
* 사무실마다 기정미디 구비하고, 사무능률을 올리고, 어린이들의 IQ 도 올립시다.
* 타이프라이터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상징하는 최신 과학 문명의 이기입니다.
* 타자기의 사용 목적은 시간 절약에 있고 타자기의 생명은 배우기 쉽고, 빠른속도에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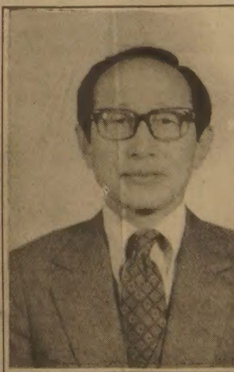
판매처
(IL) ALBANY OFFC. SUPLY. CO. (312) 267-6000
(CA) SOKWANG INTERNATIONAL (213) 570-8288
(PA) SUNJUNG KONG (215) 527-1132
(NY) KIM'S CALCULATOR CO. (212) 937-8670

직원모집

한국에있는 CITI BANK한국 지점에서 근무하실분 구함.

★토론토대학 학생일 경우=
* 자 격 : 토론토대학 4학년(졸업반) 재학생으로 비지네스나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
* 응모요령 : 토론토대학 안에있는 Placement Centre(344 Bloor St. W.4층)에 직접 가보실것
※U.C.P.A 용지나 이력서를 제출해야함
* 기 간 : 1982년1월25일부터
* 인 터 뷰 : 1982년2월1일

★토론토대학 학생이 아닐경우=
다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아래주소로 신청하기 바람.
Maureen Carty Citibank, N.A. IB/ Recruiting, 399 Park Avenue 5th Floor, Zone 14 New York, New York 10043
* 모집인원 : ○○명
* 문 의 처 : 298-0432(천명호)



김형석교수
특별성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 연세대학교 문리대 철학교수
* "영원과 사랑의 대화"외 저서다수
* 라디오, TV, 집회등을 통해 청년신앙지도
* 시카고대, 하바드대, 서울대, 고려대, 숭실대 연구교수

성회일정
2월 5일 (금) 밤 7시30분 : 특별성회
2월 6일 (토) 아침 7시 : 새벽의 명상
오후 2시 : 청년신앙강좌
밤 7시30분 : 특별성회
2월 7일 (주일) 오후 2시 : 주일예배
밤 7시30분 : 특별성회

새한장로교회
105 Wilson Avenue, Toronto, Ontario M5M 2Z9
문의전화: (416) 482-4577 (사무실) (416) 665-3132 (사택)

非情의 어린이 暗市場

英醫師 잭·프레거가 告發한 제3世界 그 現場

『그 참혹함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나 비교될 수 있을겁니다』—뱅글라데쉬를 비롯한 제3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어린이 매매 암시장을 고발한 영국의사 잭·프레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지난 72년부터 79년까지 뱅글라데쉬의 수도, 다카의 빈민촌 공공클리닉에서 환자

◆암시장에서 팔려간 어린이들은 도색영화나 잡지에 이용되거나(우·덴마크잡지에 실렸던 사진) 거지조직에 팔려 불구로 만들어진후 거리에 나와 구걸행각을 하게된다.

길에서 잡아채고…부모속여 데려가 거지組織·매춘·殺人도구등에 팔려

아기들 모델 도색영화도…美·南美가 판매 市場

를 돌보아온 프레거 의사의 고발 내용은 너무나 끔찍하다.

근착 피플지가 보도한 어린이 암시장은 불법입양뿐 아니라 매춘, 불구, 살인등의 도구로 어린이를 이용하도록 팔아넘기는 납치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거의사의 고발을 토대로 영국의 인권단체, 「영국반노예사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중이며 국제경찰과 네델란드법무성도, 스위스 어린이복지기관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다.

77년부터 암시장정체를 발견, 이모저모로 조사를 해오던 프레거의사는 79년 「내정간섭」이란 이유로 뱅글라데쉬에서 추방당했다.

프레거의사가 전하는 어린이 납치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길에서 그저 잡아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모에게서 데려오는 방법도 어렵지않다.

기숙학교를 보내준다는 말한마디에 찢어질듯이 가난하고 대부분이 문맹인 부모들은 백지서류에 손도장을 찍는다.

잘먹이고 잘입히고 네델란드구조 기관이 교육도 시켜주며 언제든지 원하는때엔 만나볼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서다.

그러나 아이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기숙학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알아냈을때는 이미 다 늦은뒤다.

그들이 찍은 손도장의 백지는 어린이양도서이기 때문이다.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암시장을 통해 나온 수만명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운명중 가장 행운은 불법입양이다. 1천달러가량을 지불한 양부모에 넘겨지는 것이다.

나머지의 운명은 비참하다.

다카의 정부관리들도 인정하듯이 어떤 어린이들은 전문거지조직에 팔려간다.

그리곤 좀더 「효과적인 거지노릇」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팔다리가 절단당하는 것이다.

프레거의사는 결코 선천적이 아닌 불구거지아이들을, 너무나 비슷한 수법으로 불구가 된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한다.

다행히 이런 반살인자들의 손을 피해간 어린이들은 매춘조직으로 팔려간다.

유엔에 파견된스위스 대사 르네·브리멜은 『매춘조직이 큰돈을 버는것은 2살이나 3살짜리 아기들을 이용해서』라고 말한다.

아기들을 모델로 도색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심한 경우엔 동물들과 아기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10대소녀들을 실제로 죽이는 장면을 담은 영화까지 있읍니다』라고 전하는 브리멜대사는 이런 영화들은 미국과 홍콩, 마닐라등지에서 갱들에 의해 만들어지며 미국과 남미가 그 판매시장이라고 말한다.

하여튼 다카의 거리에서 어린이들이 증발된다는 부모들의 호소를 들은 프레거의사가 조사해 들어가 부딪친 곳은 놀랍게도 어린이 입양기관이었다.

국제어린이 복지조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네델란드 입양기관과 네델란드 구제기관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모슬렘·알리·칸, 덴마크구제기관과 불우 어린이교육프로 책임자인 뉴질랜드인 알란·세인, 뱅글라데쉬 정부의 사회후생성 책임자인 민자너·타만·쉘리의사—

프레거의사는 바로 이들이 어린이를 팔아넘긴 주범들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어린이들을 다룰 수 있는 입장을 이용, 칸과 세인이 아이들을 훔쳐오면 쉘리는 이들의 출국서류를 도맡아 했다는 것.

그러나 프레거의사가 이사실을 뱅글라데쉬 정부에 보고하자, 「내정간섭」이란 이유로 오히려 그자신이 추방되었다.

대신 뱅글라데쉬 정부는 「고위조사팀」을 구성, 자체수사를 통해 프레거의사의 고발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뱅글라데쉬에서 추방된 후 인도 캘카타의 빈민가에서 다시 인술을 펴고있는 프레거의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테레사수녀에게서 약품을 기증받고 있다.

가족들은 영국에 남겨둔채 하루 2달러짜리 YMCA회관에 기숙하며 비참한 밑바닥의 환자들을 돌보는 프레거의사는 옥스포드 출신.

옥스포드에서 철학과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35세에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며 72년 뱅글라데쉬정부가 영국정부에 의사지원을 요청했을때 서슴치않고 이에 응했었다.

<매일연재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22)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번역

이들 두개의 귀신들은사람들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은혜를 베푸는 것등 여러 형태로 분리된다. 위험한 이누아는 매장을 잘못 했다던가 살아 있을때 나쁜 짓을 했다던가 혹은 죽을때 나쁜 귀신이 들어왔던 사람들이묻힌 곳에서 방황한다.

이 귀신들은 죽은사람이 묻힌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 까지 와서 인간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도 한다. 이 귀신들은 험한 산을 좋아하지만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을 찾아 들판으로 나와서 장난을친다.

바렌에서 내가 겪은 가장 생생한 경험중의 하나가 이노 귀신이 나의 의형제인 오텍을 못살게 했던 때였다.

윈디 베이에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

때는 밤이 없고 다만 황혼이 왔다가 사라지고하는 6월달이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 었는데 앤디가 집뒤에서 무슨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동안 나는 이것 저것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텍도 우리와 함께머물면서 검은 잣나무 토막으로 새 파이프를 깎아 내고 있었다.

가끔 창문밖으로 시선을 보내면서 달이 아직 떠올라왔나 보고 있던 오텍이 무엇을 보았는지 갑자기까무러칠것 처럼 되어버렸다. 그는 여자가 애를 낳을때처럼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 나더니 집문을 박차고 뛰어 나갔다.

앤디와 나는 둘이서 한밤중에 일어난 이해할수없는 이 사건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 오텍은 바로 문밖에 서서 무엇인지 미친 듯이 중얼거리며 코스트힐(귀신의 산)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애를썼지만 입에서는 웅얼거리는 소리 밖에 나지 않았고 놀래서 벌벌 떠는 아랫턱밑으로 가는 침이 흘러 내렸다. 앤디가 그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총의 격침에 손가락을 얹고 잠시동안 주위를 돌아 보았으나, 강밑으로 날개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한떼의 오리떼밖에는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내가 집에 들어와 보니 오텍은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자 이노를 보았다고말했다. 이노는 완전히 겨울옷을 입고서 죽은 사람의 눈을 해가지고 오텍을 꼬나 보았던 것이다. 오텍은 이 귀신이 자기를 해칠 려고 했다고 믿고서 공포에 질려 버린 것이다.

우리들은 그가 본것이밤늦게 창밖을 지나가는 새의 날개가 퍼득이는것이었을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오텍은 막무가내였다. 마침내 우리들은 그를 사로 잡은 공포가 어떤 상상적인 것이 아닐것이라는 결론을내렸다. 우리는 방법을 바꾸어 배인들의 방법을 써서 이노귀신을 쫓아 버리려고 특수한 수단을 강구했다.

그러나 오텍은 감사하게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비참해졌다. 나는 테이블에 있는 해가 되지 않는 화학약품을 물약병에 넣고 병위에다 별 생각없이 "하느님 우리의 왕을 지켜 주소서"(God Save the King)하고 국가의 첫귀절을 써 붙였다.

준비가 되어 그것을 오텍에게 가져오니까 앤디는 이 에스키모에게 서투른진찰을 막 끝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하는 말이 오텍의 맥박이 보통때의 두배나 빨리 뛴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오텍은 땀을 너무 흘려서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숨까지 가빠졌다.

내가 약병을 내밀자 그는 얼른 받아 쥐었으나 반응은 우리가 생각했너던것과는 달랐다. 그의 눈은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동공이 없어졌다. 그는 큰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옆으로 쓰러져서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서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같이 돼버렸다.

다음날 그의 친구들이우리들을 찾아왔을때 그의시체를 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 우리 둘은 오텍 만큼이나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앤디가 오텍의 꽉 다문 턱을 억지로 열고 들여다 보니까 오텍은 혓바닥을 목구멍안으로 말아붙이고 있었다.

앤디는 손을 물리기까지 하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 제자리로 돌려 놓는데 성공했다.

오텍은 잠시후에 곧 제정신을 차렸다. 결과는 어찌 되었던간에 우리가 준 약을 먹은후 한시간만에그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후에 나는 혹시 그가 간질병을 갖고 있을지 몰라서 그전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

더니 그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하녀, 3종지도, 청송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억마, 배따라기, 청산대,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상고로 가는길, 형제, [illegible]…

영화—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illegible] 고교얄개전 [illegible]

코메디—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illegible]

쇼—쇼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illegible] 흘러간 노래모음, [illegible] 50여편.

수사극—간첩체포 일화, (잃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기 10여편

민속—[illegible] 한국민속경연대회 [illegible]

일요드라마—소망, 부부, 한국의 미, [illegible] 10여편

기타—인간가족, 사랑의 계절6편, 제1공화국 10여편 [illegible]

경연대회—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illegible]

어린이용—[illegible] 50여편

한국말 외화—[illegible] 모두 230 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善美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 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秋穀收買 한달간 더延長

내달20일까지 産地쌀값下落 막기로

30萬가마늘려 50萬가마로

農資 4백39억償還 1년연기

農家當 20~50萬원信用대출

서울地域 上品米방출 中斷

정부는 수매가이하로 떨어진 産地쌀값안정과 어려운 농촌자금사정 완화를 위해 그동안 서울지역으로 축소했던 정부 상품미 방출을 20일부터 전면중단하는 한편 지난 1월5일부터 20일까지 연장했던 추곡추가 수매기간을 오는 2월20일까지 다시 1개월간 연기, 이기간중 출하되는 벼는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20일 정부가 民正黨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쌀값 안정 대책에 따르면 이밖에도 농협을 통해 당초 20만가마를 계통수매키로했던것을 50만가마로 늘리되 종전처럼 판매시 농협직매장을 통해 판매하지않고 농협이 당분간 보관키로했다.

농수산부는 이번 追加收買를 원활히 실시하기위해 전국적으로 2백40개소의 收買共販場을 常設, 희망농가의 출하를 돕고 출하농가에 대해서는 粗穀收買用 麻袋를 벼한가마당 1매씩 무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농지개량조합에대한 水稅未納分도 농가가 보유한 粗穀으로 받아 정부가 인수함으로써 농가가 水稅납부를위해 추가로 쌀을 출하하는것을 막도록 했다.

정부上品米방출은 지난해 햅쌀출하개시이후 계속 쌀값하락을 막기위해 전국18개도시에서 서울·釜山·大邱·仁川등 4개도시로 지역과방출량을 축소했다가 다시 지난8일부터는 서울지역에 한해 1일 총천8천가마에서 3천가마로 줄여 방출해오던것을 이번 전면중단한것이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보통미와 혼합곡 방출은 계속 방출키로했다.

上品米방출은 쌀값이 회복되면 다시 실시할것이나 방출가격은 糧特赤字해소를 위한 정부의 당초 방침에 따라 물가억제선 범위안에서 오는 2~3월중 3%선 내외를, 4~5월중에 6%내외를 인상한다.

정부는 농촌의 자금사정을 완화해서 농가가 무리하게 싼 가격으로 쌀을 내놓지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81년영농자금 상환분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20일 현재까지 납부하지못한 농가분 4백39억원을 延滯利子부담없이 그상환을 1년간 연기토록했다.

또 정부는 올해 방출키로 한 영농자금(현금) 4천2백억원중 1천억원은 오는 25일까지 앞당겨 방출하고 2~3월중에 1천5백억원, 4~5월중에 1천7백억원을 방출, 우선 40만호에 호당20~50만원씩 신용대출토록했다.

駐韓美軍장비 老朽
訪韓上院議員 밝혀

【워싱턴19日=聯】 주한미군 병영의 막사가 형편없이 낡았으며 군사장비도 몹시 노후화된 구식장비가 많았다고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한미상원군사위원회소속 전문위원 19명을 인용, 아미·타임즈지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수명의 전문위원들이 주한미군의 상황을 중시, 한국및 주둔군의 생활상태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전문위원들이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미군병영을 방문한결과 많은 병사들이 아직도 1950년대에 지은 콘센트 막사에서 기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大入제도·高校平準化 전면再檢討

民正 "競爭제한·졸업定員등 改善"

民正黨은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射倖心을 조장하는등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대학입시가 끝난후 大入제도및 대학졸업정원제, 중고교 평준화문제등 교육제도 전반에걸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民正黨의 정책관계자들은 20일 『中高校 평준화제도는 舊시대의 대표적인 遺物』이라고 지적하고 『모든면에서 자율과 개방을 지향하는 제5공화국은 그런차원에서 舊시대의 유물을 시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大入제도와 졸업정원제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서 『자유경쟁제도에서 탈락되거나 뒤지는데는 별다른 불만이 있을수 없으나 제도적인 경쟁제한으로 탈락되는것은 불만의 요소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民正黨은 이러한 교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간단히 개선될수 없다는 점을 감안, 이번대학입시의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후 국회文公委소속 의원들과 함께 各界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黃炳晙 黨정책연구소 이사장도 『현재 黨지도부로부터 교육제도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한간에 물의를 빚고있는것은 사실인만큼 이문제에대해 대처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첫 海外公館長 회의

對北傀 外交優位를 강화

安保·經濟·統一 기반조성…對共産圈 관계증진

금년도 在外공관장 회의가 20일상오 중앙청 회의실에서 개막식을 가진뒤 이어 이날 하오 盧信永 외무장관주재로 첫날 회의를 열고 北韓의 對外동향분석, 유엔및 非同盟회의에서의 한국문제, 교포사항등에 관해 논의했다.

劉彰順국무총리서리는 이날 개막식에서 치사를 통해 『최근 北韓은 우리우방에대해 정치, 외교, 경제 면에서 치열한 침투공작을 전개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외교기반을 잠식하기위해 反韓책동은 물론 在外동포의 회유공작도강화하고있다』고 지적, 『이같은 北韓의도전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대처해 制압해야 하겠으며 우방국과긴밀한 관계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우위를 뚜렷하게 다져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첫날회의에서 盧외무장관은 訓示를 통해 올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외교시책목표를 安保·經濟및 平和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외교에 두고 이를 위해 美·日·歐洲등 우방과 非同盟국가는 물론 공산권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自主·能動·實利추구위주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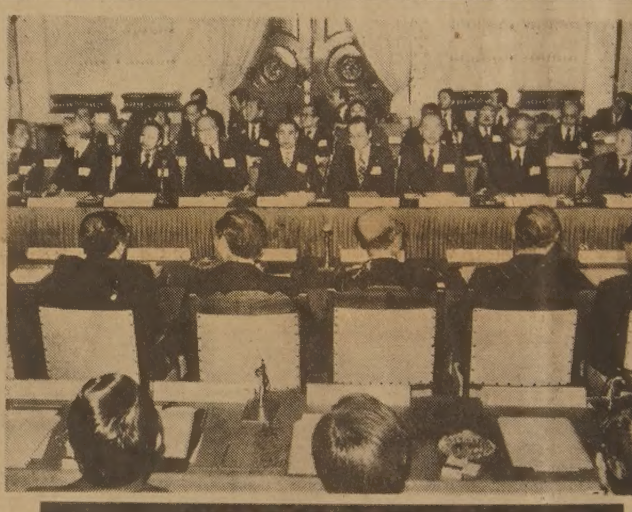
그는 또 한국외교의 兩大主軸인 美日양국과의 관계증진을 역설한다음 유럽各國과의 관계深化 문제에 대해 『이 지역이 최근 사회주의 정당의 급격한 세력신장등에 책동이 있어 北韓의 집요한침투책동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따라서 프랑스, 그리스등 사회당집권국가와의 다각적인 접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盧장관은 특히 오는 9월 바그다드에서 열릴 非同盟頂上회담의 중요성을 역설, 北韓측이 지난2월 뉴델리非同盟外相회의의 실패를 만회하기위해 이번頂上회담에서 노골적인 攻勢를 펼것으로 분석, 이에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이번 在外공관회의에는 崔慶祿駐日대사, 柳炳賢駐美대사등 36명의 공관장(非同盟지역공관장은 제외)이 참석했다.

공관장회의는 21일 다시 政務관계를 협의하고 22일 경제관계, 23일 弘報·文化·領事·僑民관계를 논의한뒤 결의문을 채택하고 폐막식을 갖는다.

공관장들은 이날 개막식에 참석하기앞서 국립묘지를 참배했으며 이날밤 盧외무장관이 漢南洞공관에서베푼 리셉션에 참석했다.



6大洲 36명의公館長 한자리에

◇20일 중앙청에서 열린 올해 첫 在外공관장회의에는 6大洲에서 36명의 공관장들이 참석,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했다. 제5공화국外交의 一線지휘관들인 이들 공관장들은 對北傀우위 확보, 통일기반조성, 수출목표달성등 그어느때보다도 무거운 짐을 안고있다. 외무공무원법 발효로 공관장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져 「肉彈외교」의 현장을 보는 느낌이다.

교육문제小委 文公委에 常設

韓炳寀국회文公위원장은20일 民正黨이 대학입시제도문제를 비롯, 대학졸업정원제및 중·고교평준화시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것과 보조를맞추어 국회차원에서도 이문제를 다루기위해 文公委에 『교육문제小委』를 常設化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부작용과반론, 국회에 各界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공청회등을 통해 이에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전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을 모아 문교

全대통령, 通禁없는밤 첫視察

"遵法精神 몸에배야"

"軍警비상근무 당분간계속"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새벽부터 약3시간동안 야간통행금지해제이후 실시되고있는 서울시내의 軍警합동深夜비상근무체제현황을 점검하고 거리질서와 교통소통상황등을 살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새벽 0시15분 서울市警에 도착, 상황실에서 李海龜시경국장으로부터 軍警합동深夜비상근무체제운영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은뒤 『야간通禁해제후 전국에 걸친 軍警합동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수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관들이 비상근무에서 오는 피로를 최대한도로 덜수있도록 근무체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安應模치안본부장과 李시경국장에게 각각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당분간 현재대로 비상근무체제를 실시하다가 그 후부터는 취약지구에 병력을 중점배치하는 정상근무체제로 환원토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3시간에 걸친 深夜시찰을 끝낸뒤 청와대에서 수행한 관계관들과 시찰결과를 평가하면서 『지금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후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않은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지적, 『국민들 각자가 스스로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등 遵法정신이 몸에 배도록 계도해나가야 할것이며, 특히 운전기사들이 遵法정신을 갖도록 라디오등을 통해 교육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市警보고에 이어 市警상황실 통신체제를 돌아보고 승용차편으로 武橋洞, 淸溪川등 서울 도심지의 교통현황과 거리질서를살핀뒤 새벽1시20분 城北경찰서에 들러 趙甲濟야간상황실장으로부터 심야비상근무 태세를 보고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전투경찰대의 근무체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경찰관의 교대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고려했으면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새벽 1시40분 城北경찰서를 떠나 城北경찰서 吉音파출소를 찾아 당직근무중인 경찰관과 헌병으로부터 관내현황과 합동근무상황을 보고받고 軍警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水踰洞을 거쳐 새벽2시15분 道峰검문소에 들러 당직장교로부터 검문소현황에 관한 보고를 들은뒤 통신시설과 비상연락체제를 점검, 확인했다.

새벽2시40분 道峰검문소를 떠난 全대통령은 彌阿洞~敦岩洞—三仙洞—城北洞을 거쳐 새벽3시15분 청와대로 돌아와 이날수행한 安치안본부장, 李시경국장, 軍관계자들과 약45분동안 차를들며 시찰결과를 종합평가했다.

佛마수페르議員 接見…오찬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20일 낮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프랑스의 필립·마수페르 上院의원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 폴렝駐韓프랑스대사가 배석했다.

「特定연구開發사업」確定

政府, 단독·企業공동出資 두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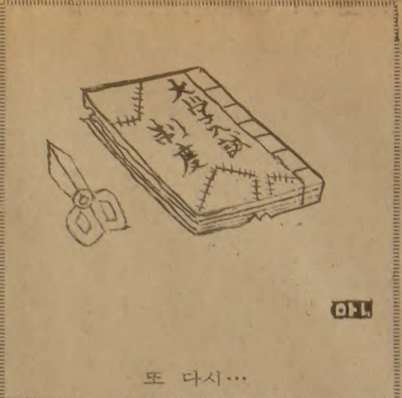
政府는 첨단전략기술의 토착화와 企業의 획기적기술개발을 촉진키위한 「特定研究開發事業推進計劃」을 확정했다.

20일 科學技術處가 마련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에 의하면 공익성이 높은 中·長期 대형연구개발과 共通核心기술등 國家研究개발사업은 1백%정부출자, 정부주도로, 企業이 당면한 技術開發등 産業技術연구개발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출자, 기업주도로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올해 1백40억원을 투입하되 산업기술쪽에 비중을 두어 이의 70%정도를 할당하는것으로 되어있다.

또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遺傳工學 ▲原子力安全性 ▲민간소형비행기 ▲화학물질안전성 ▲컴퓨터설계및 제조등 공공사회복지향상에 직결되면서 기업공통 애로기술분야에, 산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기계공업의 高度化 ▲정밀화학 ▲컴퓨터및 반도체 ▲시스팀산업 ▲금속재료 ▲高分子화학공업등 기술수요가 많고 수출증대와 수입대체효과가 높으면서 성공가능성및 기업화가용이한 분야에 두되 과제의 선정은 『綜合科學技術회의』와 專門分科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된다.

한편 연구결과에 대한 工業所有權은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소유하게되나 정부소유분은 연구수행자 또는 민간기업에 양도하며 연구결과가 기업화에 성공할경우 정부출연 상당액은 技術料로 科技處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의 福祉基金積立과 참여연구원에 대한 능률獎勵手當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社会漫評



또 다시…

地平線

미국에 디스카운트 하우스니 웨어하우스 스토어니하는 割引전문상점이 있다. 한해 내내 상품을 싼값으로 보다 싸게 판다. 싸구려 상품뿐만 아니라 유명 메이커의 상품까지 직접 사들여 경비절약으로 싸게 현금판매하는 것이다. 최근엔 회원끼리만 팔던것이 이제는 새로운 小賣업태의 하나로 인기를 얻고있다.▼우리나라에도 대폭할인판매 제도가 상륙한지 한참됐다. 미아리 어디엔가 연중할인상점이 생겼다는 광고를 본일도 있거니와 구정대목을 맞아 백화점이나 일류상가에서도 40~60%세일이 유행이다. 너도나도 이때를 놓칠세라 백화점에 소비자들이 밀린다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태껏 너무 폭리를 취해온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려온다. 상인들은 현금회전이 아쉬운데다 철지난 물품을 묵히는것보다 싸게 파는것이 이자부담·상품가치손실을 생각할때 더 유리하기때문이라고 말한다.▼세일풍조는 백화점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明洞의 골목골목을 보더라도 세일안하는 상품이 거의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아니다. 세일못지않게 물품을 싸게 살수있는데가 또 있다. 다름아니고 동대문이나 청계천의 도매시장이다. 薄利多賣를내걸고 도매겸 소매를 하고있어 소비자한테는 고마운 존재다. 디스카운트 하우스라는 이름은 안붙어있지만 살림장하는 주부들이 곧잘 찾는 시장이기도하다. 어느 청계천 시장에서 공장도값에 물건을 팔기에, 그래도 수지가 맞느냐고 물었더니 물건 들여올때는 어음을 끊고, 물건팔때는 현금을 받기때문에 괜찮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준다.▼돈이나 상품은 물처럼 흘러야되고 내년의 몇십만원 짜리 어음보다 오늘의 현금 십만원이 더 아쉽다는 상인들의 심리가 나타나있다. 장사한다는 商은 앉아서 물건을 사들이고 파는 賈자와는 달라 行商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周나라에 져서 망한 商나라(殷)의 遺臣들이 奴隷가되거나 장시가돼서 行商했기때문에 장사꾼을 商人이라고 부른다는 故事도있다. 말하자면 機動性있게움직여 實益을얻어야 장사가 되는것이다. 우리가 영어로만 아는 스넥도 알고보면 미국에 사는 華僑가 만들어낸것이고 우리들이 먹는 라면도 일본의 華僑들이 발명한것이라고 하니 그들이야말로 정말 商人인지 모른다.▼모처럼 바겐세일로 붐비는 구정대목에 서로 웃는낯으로 옷가지하나라도 값싸게 장만하는것은 나쁠것이없다. 다만이기회에 소비자들의 의혹을 덜기위해서는 상품가격에 대한 적정이윤을 다시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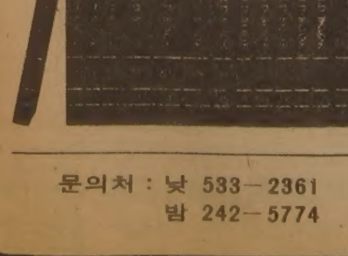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30~6:00 월, 화, 수, 토
9:30~9: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종합보험

김 홍 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少壯의원 일부起用될듯

民韓、2월중 폭넓게 要職개편

"現黨職者 상당수交替

柳총재 傳統野黨·位階性살려 人事"

民韓黨은 최근의 黨職사퇴波動을 수습하기위해 열린 19일밤의 擴大간부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전에 黨職을 개편하기로 결정함에따라 2월중에 상당수의 現役黨職者를 교체하고 少壯初選의원을 기용하는등 要職개편을 斷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黨職개편문제가 구체화될 경우 柳致松총재에게 재량권을 주기위한 하나의형식절차로 黨職者의 일괄사표제출이 예상되는데 특히 이번人事에는 黨職개편을 강력히 주장했던 少壯初選의원들이 일부 起用될것으로 전망되고있다。

柳총재는 부총재를 비롯한 다른 고위黨職者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뒤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20일 이문제에 대해『아직은 原則만 결정되었을뿐 그시기나 幅에 대해서는 좀더시한을 가지고 신중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柳총재는『창당 1년이 지난만큼 의원 각자의 역량이나 능력은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전통야당의 位階性을 존중하면서 능력이 반영되는 인사를 구상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柳총재는 19일밤 서울汝矣島 H음식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는 2월말이나 3월에 소집될것으로 보이는 제1백10회 임시국회전에 黨職개편을 하되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斷行하겠다고 밝혔다。

柳총재는 이날 최근에 문제가되고있는「黨職辭退波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單獨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韓英洙정책위의장의 사표도 이때 일괄처리하겠다고 말했다。

韓日議員聯、금년活動계획 확정

日自民幹部등 초청

副幹事長 추가任命

韓日議員聯盟은 20일 새해들어 처음으로 간부회의를 열고 금년도 활동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朴敬錫(民正)·孫世一의원(民韓)을 副幹事長으로 추가임명、副幹事長을 10명으로 늘리고 常任幹事에 黃善性(民韓)·趙炳鳳의원(국민)을 추가 임명、3명으로 늘리는등 간부진을 補強했다。

韓·日의원연맹은 이날 東北亞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선 韓日양국간에 안보적인 인식을 같이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위해 금년에 日本自民黨내 各派閥의 중진들과 公明黨·民社黨·社民聯·新自由클럽등 中道派정당의 간부들을 초청키로했다。

金潤煥간사장은『일본의 예산회기가 3월말에 끝나면 4월부터 스즈끼(鈴木)파의 사이또·구니기찌(齋藤邦吉)前自民黨간사장및 후꾸다(福田)派의 아끼다·다이스께(秋田大助)前衆議院부의장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히고『지난해에 訪韓치않았던 新自由클럽의 다가와·세이이찌(田川誠一)대표등 간부7~8명도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오는3월 서울에서 한일간사회의를 열고 8~9월에 東京에서 제10차 韓日의원연맹합동총회를 갖는등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5分인터뷰

柳炳賢 駐美大使

「無소식이 喜소식」이라는 말은 외교에도 적용되는 말인것 같다。在外공관장회의에 참석차 귀국중인 柳炳賢駐美대사는 韓美간의 懸案이 뭐냐는 질문에『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 오히려 요청까지 했다。그만큼 韓美간에는 작년 2월의 頂上회담이후 문제가 되는 현안이 없다는 얘기인것 같다。

―韓美修交1백주년을맞아 헤이그국무장관이 訪韓한다는데。

『국무성의 국제교류처(ICA)측에 확인했더니 美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위인사가 訪韓할 예정이라고만 밝히더군요。헤이그장관이 오려면 일단 盧信永외무장관의 초청이 선결문제일텐데―。책임면탈은 아닙니다만、장관께 직접 문의해 보세요』

―1년전 軍에서 豫編과함께 駐美대사로 임명된 그는 그동안 워싱턴外交街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클라크 신임 白堊館 안보담당보좌관도 파티에 초청하고―。

『개별적으로 막역한 분입니다。더구나 그분의 출신지가 태평양과 沿한 캘리포니아인지라 태평양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인식도가 높아요』

韓美관계는 이제脫政治的 實務的「信賴의 懸案」맞아

―美국방성은 최근 駐韓美軍장비개선을 위해 5억달러를 배정했던데, 어떤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美軍부대치고 2次大戰당시의 콘세트막사를 그대로 쓰고있는 부대는 駐韓美2사단밖에 없어요。이런 老朽장비를 현대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軍事通외교관답게 막히는게 없다。대사의 이름은 美外交街에서 보다 軍쪽에 더 잘 알려져있을 정도。美軍장비의 代替에관해 설명을 보충한다。

『駐韓美軍철수를 白紙化한 레이건행정부의 決意가 實體으로 나타난게 아닙니까。임시시설을 半永久化했다는게 과연 뭘 뜻하겠읍니까』

―韓日經協에 관한 美側의 발언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美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더군요。韓日간의 만족한 협력을 바라고있는 눈치입니다』

―올해 對美수출전망은 어떻게 보는지요。

『지난해 수출목표는 53억달러인데 2억달러의 出超를 보였읍니다。올해 수출목표는 이번 공관장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시달될것으로 압니다。對美수출도 중요하려니와 漁獲쿼터조정도 무시할수 없어요。지난해 우리의 對美어획쿼터는 만톤이었는데 이가운데 93.26%의 漁獲高를 올렸읍니다』

對美관계의 현안하면 으레 정치적사건만을 염두에 두기 쉽다。朴東宣사건、金大中사건등만을 기억해 온 意識의 스테레오현상 탓이다。양국의 懸案은 이제 바뀐것같다。經協과出超、어획량의조정을 역설하는 柳대사의 답변을 통해 두나라는 이제 脫정치적이고 실무적인「信賴의 懸案」을 맞았다는 느낌이든다。【金勝雄 기자】

崔慶祿 駐日大使

20일부터 열리는 在外公館長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귀국한 崔慶祿駐日대사는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韓日高位實務者간의 예비회담결과에 대해 한마디로『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성공적이었어요。귀국하기 직전 사꾸라우찌(櫻內)외상을 만났더니 매우 만족해 하더군요。서울을 다녀간 기우찌(木內)아시아局長도 만났는데 회담분위기가 아주 和氣애애했다고 말하더군요』

지난9월 서울에서 열린 韓日각료회담이후 양국간의 經協교섭은 깊은冬眠을 맞았다。崔대사는 이번 예비회담이야말로 冬眠을 깨는 결정적 계기가됐다고評價했다。

―經協문제와 관련해 駐日대사관이 벌이는 주요교섭窓口는?

『外務省、大藏省 그리고 自民黨등 세곳입니다。대사관직원모두가 무척 바쁘게 지냅니다。대사관건물은 밤10시가 넘어도 항상 불이 켜져 있지요』

經協문제 冬眠서 깨어난셈 성급한기대 앞서 설득으로

―지난번 美·日安保협의회때 美태평양지역사령관 롱提督이 日側에 對韓經協의필요성을 역설했던데…。

『美·日양국간의 우호관계를 염두에두고 그런말이 나왔겠지요。자칫 미국이 뒤에서 經協에관해 뭔가 역할을 한다고 추측을 하는 모양인데、천만의 말씀입니다。이번 經協은 어디까지나 韓日두나라간의 문제입니다』

―韓日外相회담의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예측不許입니다。經協額數문제도 그렇습니다。예상외로 앞당겨(妥結)될수도、그반대일수도 있지요。저의 외교철학은 조급을 피해야 한다는것입니다。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대를 만족할만한 線으로 설득시키는과정、그것이 외교아닙니까』

―60억달러얘기가 처음으로 日側에 전달된것은언제부터입니까。

『지난8월의 外相회담때부터입니다。여러가지「억측」이 나돕니다만 공식적으로 전달된건 역시 外相회담때부터지요』

그는 특히「억측」의 虛構를 강조한다。미국의 배후역할도、60억달러의 전달시기도 모두가 無知의억측에서 비롯됐다고 強辯한다。

『심지어는 이런 협담도 나돌고 있어요。후꾸다(福田)前수상이 말하길 60억달러는 다준비돼있는데 한국외교가 흘려먹어 안주고있다는 거예요。그얘길 꺼낸 장본인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잘 알만한 국내 저명인사 입니다만、자기가 이번 經協교섭을 맡았다면 쉽게 해결될뻔 했다는 논리죠。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손해입니다』

崔대사의 요지는 外交窓口의 단일화와 經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일치된 輿論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있는것 같다。

『일을 어렵게 시작하면 결과는 쉽게 풀리는 법이지요。아시다시피 저는 軍출신입니다。6·25땐 부대를 잃고 혼자서 3주간을 山속에서 지낸적도 있어요。참고 견뎌내는 작업은 軍시절이나 지금이나 무척 익숙합니다。기어이 經協을 成事시킬 작정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까요。自民黨의 유력한 지도자나 실업가가 訪韓할경우 그들은 반드시 外務省일선책임자의 브리핑을 듣습니다。한국에가서 누구누구를 만날것。만나서 다룰 議題와 전망까지를 일일이 지시받습니다。이들은 또 귀국후 구체적인 訪韓성과를 외무省에 보고합니다。對韓문제에 관한한 모든 情報가 외무省에 수집되고있어요』

"韓·日관계「共存형태」로

盧外務 經協문제 平等원칙따라 전개"

盧信永외무장관은 20일 韓日간의 외교현안인 經協문제와 관련、『정부는 對日관계를 국민적바탕과 平等원칙에 입각해서 전개해 나갈방침』이라고 밝히고『經協을 통해 양국관계를 과거의「가깝고도 먼」관계에서「가깝고 가까운」관계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하오 在外공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앞으로의 韓日관계는 歐共市(EC)의 共存패턴으로 발전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어 對日經協의 경위에 대해、『이번 經協은 全斗煥대통령의 着想과 英斷에서 비롯됐으며 公共借款60억달러、수출입은행차관40억달러등 도합1백억달러가 요청액의 內譯이라면서 정부는 만족한결말을 맺기위해 모든 외교적노력을 경주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韓美관계에언급、『양국관계는 현재 최상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이러한 관계유지를 위해 양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先總額타결 프로젝트提示

소식통、韓·日實務회담 內譯밝혀

정부는 지난 14·15양일간 열린 韓日실무예비회담에서 日側에 제시한 경제협력내용은 주택、학교、의료、도로등 民生安定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하고 2월중순경에 再開될 예비회담에서 對韓經協자금의 總額과 조달방법등을 협의、타결할방침이라고 20일 정부의 한관계소식통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이 제시한 프로젝트는 주택건설、학교건설、의료기자재도입및 병원건설、공해방지시설、多目的댐건설、上下水道정비、지하철 釜山線건설、LNG(天然液化가스)시설、철도와 도로의 정비등 11개항으로되어있다고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日側에 제시한 11개항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요청해온총액의 정치적妥結을 전제로하되 日側의 프로젝트심사를돕는다는 측면에서 취해진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의 소리 국민에 傳達"

民社、創黨한돌

民社黨은 20일상오10시 서울太平路당사에서 창당발기인과 黨職者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創黨1주년기념식을 가졌다。

高貞勳당수는 이날 기념식에서『民社黨은 앞으로 국내정치에서「제3의 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고 대외적으로는 西歐민주사회주의진영과 제3세계와의 연대강화를 위한 정책차원의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北傀노동당의 외교공세와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駐韓 美副大使부임

폴·클리브랜드 신임駐韓美副대사가 20일 來韓、赴任했다。

클리브랜드 副대사는 美국무성 東아시아局 지역문제과장、泰國과장、한국과장등을역임했으며 지난 75년부터 2년간 駐韓美대사관 정치담당참사관으로 근무한바있다。

定期國會엔 豫算案만 제출

政府、制定·改正法案은 임시國會에

정부는 금년부터 정기국회에는 豫算案과 예산관계법만 제출、예산안심의가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수있게 하고 制·改正 법률안은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제처가 20일마련한 立法추진계획 세부지침에 의하면 각部處는 금년에 국회에제출할 제정 또는 개정 법률안의 數와 제출시기를 미리계획、오는3월말안에 법제처에 제출하고 법제처는 각部處의계획을 종합、제정또는 개정필요성등에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국회에 넘길 방침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는 모두 96件의 법률안이 정부에의해 제출됐으나 심의기간의 부족등으로 73건만 처리됐었다。

大陸棚회의 2日째

韓日양국은 19일에이어 20일 韓日대륙붕공동위원회 제4차 정기연차회의를 열고 대륙붕 공동개발의 추진、鑛害·海上오염및 海上재해방지、전파·통신관계에대한 협의를 계속했다。

회의는 또앞으로 공동개발구역에 있어서 석유 천연가스 자원의 探査및 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위해 양국이 수시로 긴밀한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공동위원회는 다음 회의를 東京에서 개최하되 개최시기는 추후 결정키로합의했다。

創立1주년 紀念式

한국放送 廣告公社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일 창립1주년을 맞아 회의실에서 간소한 기념식을가졌다。

洪斗杓사장은 이날 기념사를통해『올해에도 복지사회건설에 일역을담당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공익사업과 광고발전을 추진해 나가자』고 사원들에게당부했다。

北送교포、差別반발

北傀市黨秘書 打殺

【東京20日=聯】북송교포들이 북괴당국의 차별대우에반발、작년말 南浦시에서 市黨비서를 타살하는등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교포신문 統一日報가 20일 보도한바에 의하면 작년10월말 南浦시에 거주하는 일부 북송교포들이 학대에 못이겨 黨비서를 타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어 11월초에는 平壤에서 북괴고위층인사들이 타고다니는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충돌시켜 살해하려했으나 실패한 사건이 일어났다。

統一日報는 최근 북괴를방문하고 돌아온 조총련방문단이 북송된 친척을 만나보려했으나 행방이 묘연한데 의심을 품고 추궁한끝에 이같은 사건을 일으켜 어디론가 연행됐음을 확인했다고전했다。

특히 平壤시에서는 북송교포가 고위층승용차를 들이받는 광경을 마침 현장에 있던 조총련방문단이 직접 목격한것으로 알려졌다。

人事異動

치안본부

▲경남三千浦서장 鄭秉大(치안본부작전2담당) ▲치안본부작전2담당 金守煥(〃3〃) ▲〃3〃 劉成國(서울시경작전과) ▲경북府珍서장 金原植(경북도경비과장) ▲경북도경비과장 李學源(경북府珍서장) ▲직위해제 吳奉得(경남三千浦서장) 〈20日字〉

社說

올해外交의 벅찬課題

—새스타일과 多邊接近으로 풀어야

貿易국민일수록 外交에도 능숙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바와 같다。名分에 대한 집착보다도「비즈니스라이크」한 現實감각에 입각하여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는「기브·앤·테이크」의 증폭이야말로 外交와 교섭의 성패를 가름하기 때문이다。이점은 우리나라가 新興工業國인 동시에 國土兩斷이라는 制約條件도 면치 못한 채「제2의 도약」과 多邊外交의 新境地개척을 다짐하는 가운데 유난히 강조될바라고 믿는다。

때마침 20일 올해 들어 첫번째인 在外公館長會議가 중앙청에서 개막되었다。우선 美洲·歐洲·亞洲지역 공관장 36명이 참석하여 오는 23일까지 4일간 계속되리라고 한다。여타 지역 공관장회의는 2월중순께에 열릴 예정이라는것이다。

82년의 國際環境은 미묘한 不確實因의 중첩을 느끼게하는 가운데 새해의 外交課題는 매우 벅찬것으로 나타나있다。우선 이해는 5차5개년계획이 착수되는 年度인데도 國際經濟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景氣회복이 기대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밝지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금년 수출목표 2백50억달러를 기필코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經協및 通商증진 대책이 주요한 관심사로 제기된다。

게다가 88년 올림픽및 86년아시안 게임의 서울 유치를 계기로한 未修交國들과의 관계 개선이 촉구되는 다른한편에서 北傀의 방해공작 내지 침투공세가 가열될것으로 예견된다。오는 9월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非同盟 頂上會議가 개최되거니와 北傀측의 모략책동이 벌써부터 만만찮은 도전을 내다보게한다。美國과의 전통적 安保協力은 퍽 양호한편이지만、歐洲友邦들에 보는 社會黨政權의 伸張勢가 초래할는지 모를 外交的의미는 아직 불투명하며、이웃 日本과의 友好經協의 귀추 또한 지금은 懸案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狀況判斷아래 盧信永외무장관은 첫날 훈시를 통해「總力外交의 전개」를 다짐하면서 安保·經濟·平和統一기반조성에 걸쳐「自主·能動·實利追求」의 적극적 外交활동을 강조했다고한다。

安保外交에서는 美·日·西歐등 友邦들과의 유대 강화에 더욱 노력하되、日本과의 經協문제 타결、프랑스및 그리스등 社會黨政權과의 다각적인 접촉활동에 힘쓸 것을 부각시켰다。經濟外交에서는 자본및 기술도입과 合作投資유치、수출의 지속적 확대가 강조되었는데、先進國들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東南亞의 일부 先發開途國들과의 무역경쟁 격화가 방심을 불허하는바 있다。

共産圈국가들과의 相互主義 門戶開放정책、非同盟外交에서의 對北傀優位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도 당연시된다。

그리고 공관장회의에 즈음한 劉彰順국무총리서리의 致辭는 經濟外交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北傀가 우리의 外交기반을 잠식하려고 서두는 각종 反韓책동 내지 在外동포들에 대한 회유공작에 각성을 높여야 할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와같은 環境認識과 새해 外交課題의 설정은 總體的인 國家戰略의 일환이라는데 비추어 십분 납득이 가며 在外公館長들의 가일층 분발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촉구된다고 할것이다。이 경우에 제1선外交陣은 작금에 전개된 國內改革의 진척에 어울리도록 구시대의 形式主義나 官僚主義타성을 과감히 탈피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行事式外交라든지 알맹이없는 展示外交보다 個別接觸의 實利外交에 力點을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다。英國같은 경우는 首相급人士라해도 紳士的「세일즈맨십」의 발휘에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할수 있겠다。

韓國外交도 어언 成年期를 넘어 한 世代이상의 경험축적을 이룩했으니 점차 독자적인 外交스타일을 정립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開放的이며 傾聽노력이 뚜렷하고 親近性있는 接近자세를 自體確認할수있어야 한다는 것이다。外交에서의 對北傀優位와 懸案의 합리적調整이 그러한 資質에 입각하여 떳떳이 國際社會에서 과시되기 바란다。海外公館長들의 새해다짐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

國史교육과 民族史觀

—개정教科書내용의 指向點을 보고

국사교과서의 새내용이 밝혀졌다。올해부터 초중고교생들이 배우게되는 것으로 그동안 시비가 붙었던 대목이 상당히 손질된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세부에 이르기까지 어떻다고말할수있는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동안「국사찾기」논쟁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눈에 띄고있다。

예를들어 단군조선이 보다적극적인 비중을 차지하고、고구려와 백제의대외활동이 취급되고있는 것등이다。

이는 국사찾기논쟁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학계에서 전반적으로는 큰 反論이 없는 내용이었다고 할수있는 것들이다。

철기시대의시작을 약2세기 올려잡은것도 최근 우리고고학계의 연구성과로볼때 당연한 추세라고해야겠다。

이번에 또하나 평가해야될것은 조선왕조의 전반기를 근세로하고 英正이후를 근대로잡아 현대의 앞단계로서보다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있는점이다。日帝식민사관의 핵심이 우리역사의사회적 정체론인만큼 근대의 적극적인 평가는 우리 역사교육에서 가장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19세기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은 새로운 안목으로 다루어질 필요가있다。우리의 근대화결코 日帝의 충격으로 된것이아니었고 그야말로 내재적인 발전의 결과였다는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알려야된다。

그러나 새로 쓰여진 교과서에는 아직 우리 학계의 컨센서스에서 거리가 먼것도 있는것으로 보인다。

「동학혁명」을「동학운동」으로바꾼것을 그런 예로 들수있다。혁명과 운동이 어떻게 다르고、동학에대한 역사적 평가와 어떻게 관련되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해야될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왕조가 아니라 민족과 민중의 입장에서 가르치기로했다는 전제와도 모순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소재의 하나였던 조선왕조의 당쟁에 관해서는「정치안정을 위한 노력」이라는 소극적인 표현으로 돼있는것같다。이러한 소극적인 표현으로 식민사관이 극복될수있을지 생각해볼 일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쟁이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었다는 보다 적극적인 평가가 아쉽다고 해야될 것같다。

「자주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의역사를「능동적 역사」로 파악하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는 그렇게 쉬운문제가 아니다。구호로 내세우기는 쉬워도 구체적으로 한대목 한대목 짚어나가는 과정은 신중해야되는 것이다。

당쟁의 표현도 그런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수있다。

현대에 들어와 한일문제의 비중을 되찾은것은 오히려 때늦은것이라고하지않을수 없다。어쩌면 이 대목이 당연한 자리로 되돌아온것도 이번 작업에서 얻은 성과다。

하나、현대부분에서 역사교과서보다는 시사문제에 들어야될 대목이 섞인것같은 인상을 주지않도록 신중한 서술이 필요하다。역사보다는 오히려 정치·경제에 들어야되는 대목은 피하는게 좋다。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뿐만아니라 사회교육이 지난날에 집착하는 일방통행의 골목길이 돼서는 안된다는 커다란 안목을 지켜야된다。

우리역사의 위대함이「그 끈질긴 자주성에 있는것처럼、또는 그이상으로 우리가 오늘날「세계인」의 대열에 끼일만큼 성장한 데에 있는것이다。

우리가 어떻게해서 아프리카의 원시부족처럼 좁은 세계에 머물지않고 세계인의 무대에 뛰어들수 있었고 세계인의 가치를 이해할수 있게됐느냐는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고려청자건 조선초기의 과학기술이건 이 커다란 테두리를 놓쳐선 안될 것이다。

政局往來

民韓初選들、柳총재改編豫告 환영하며 期待

◆各機關 獨自활동으로 손발안맞아

民正黨은 20일 權正達사무총장실에서 간부모임을 갖고 黨內의 정책기구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할뿐아니라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측과 대화의 창구를 마련키로 결정。

회의에 참석한 한관계자는『정책위의장단 정책연구소 정책조정실등 黨內의 정책기구들이 그동안 독자적인 활동으로 손발이 안맞는등 산만한점이 있었기때문에 이를 시정키위해 정책조정실장을 黨內 單一정책창구로 삼아 정책기구들이 상호보완작업을 하도록 했다』면서『전문위원수도 현재 7명에서 5명을 더增員、국회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두기로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또 黨의 전문위원과 행정부기획관리실장간의 對話창구는 黨政協調채널은 될수있지만 국회상임위활동을 소화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국회차원에서는 국회와 정부간의 별또 협력채널을 갖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탈派爲主로黨職改編되도록"

柳致松총재가 黨職개편단행 결심을 밝히자 民韓黨內 初選의원들은 異口同聲으로 환영하면서 改編內容에 대해 벌써부터 깊은 관심을 표명。

孫世一의원은 20일『黨職改編은 많은의원들이 바라고있던것으로 총재의 결정을 斷案으로 생각한다』며『그동안 탈派이 좋지않아 말썽이 났기때문에 탈派爲主로 黨職이 개편되었으면한다』고 희망했고 洪思德의원은『變化를 추구하는 소리를 지도부가 받아들인것으로보며 동시에 변화추구의 實體를 반영하는 개편이 되었으면한다』고 말했다。

徐錫宰의원은『총재가 心機一轉、이정도의 陣痛으로 代案을 찾게된것이 기쁘다』면서 이를 黨발전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고 許景九의원은『정통보수야당의 位階를 존중하면서 黨의 기능을 활성화할수있도록 개편되어야한다』、尹起大의원은『어려운 싯점에 총재의 지도력이 발휘된만큼 개편에도 총재의 力量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野黨이 에너지節約에 앞장서길

金鍾哲국민당총재는 20일하오 신임인사차 국민당을 방문한 李宣基動資部장관을 맞아 에너지문제등에 관해 환담을 나누었다。

金총재는 이자리에서『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추속만 빼먹고 겉은 버리는 악습이 있다』면서『에너지문제만해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은 質이 나쁘다고 外國産기름만 들여오면 外債부담을 이길수 없으니 우리나라 석탄의 활용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

이에 대해 李장관은『에너지문제는 우리생활과 직결되기때문에 이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을수 없다』면서『우리국민들이 에너지절약운동을 스스로 실천한다면 상당액의 外貨를 절약할수 있으니 야당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李萬燮부총재는『작년에 低質炭사건이 터졌을때 적당히 무마할게 아니라 정부가 에너지 실정을 털어 놓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정부측의 失機를 책망했으며 또 尹錫民부총재가『우리나라가 中共에 상품을 팔고 中共의 석탄을 수입하는게 어떠냐』고 묻자 李장관은『일부 그런얘기가 오가고있다』고만 답변하기도。

◆「第3의소리」들려주는政黨될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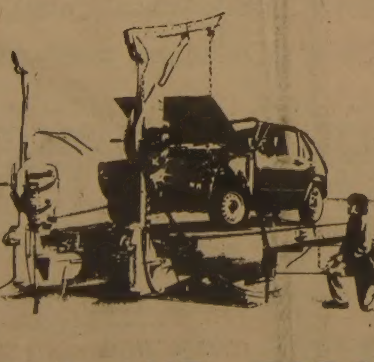
民社黨의 高貞勳당수는 20일상오 열린 民社黨창당 1주년기념식에서『民社黨은 앞으로「第3의 소리」를 국민에게 들려주는「第3의 정당」이 되어야할것』이라며 전례없이「第3의 입장」을 강조。

「제3의소리」에대해 이는 종래의 與野대립과 黑白논리를 극복하기위한 路線으로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제3의입장을 代辯하는 소리』라고 설명하기도。

이날 창당기념식에선 최근 관심을 끌고있는 新政黨과의 合黨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넘어가 눈길을 모았다。한편 黨정책연구실은 이날 창당1주년을 맞아『轉換期에선 한국민주사회주의』라는 油印物을 내고『민주사회주의정당과 보수정당의 통합이 성숙되어가는 오늘의 싯점에서 통합운동은 결코 어느한쪽의 변질이나 퇴보가 아닌 일대跳躍운동』이라고 최근의 保守革新통합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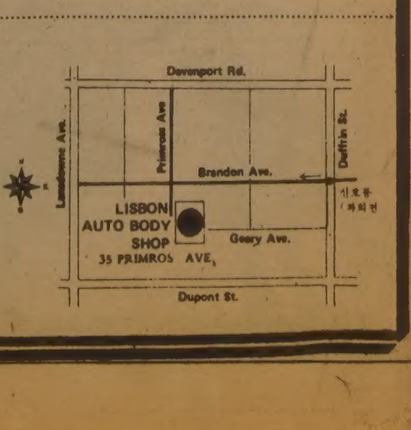
신년특별봉사

*A. CLASS LICENCE BODY MAN
*A. CLASS LICENCE PAINTER
*GUARANTEE WORKMAN SHIP
*사고후 보험처리
*OVEN BAKED FINISH
*COMPLETE BODY WORK
*TOWING써비스
*수리중 차대여



● 교민 여러분께 개업특별 써비스
● 유능한기술과 철저한 신용으로 봉사
● 수리후 문제점에 대한 책임보증

이 영 두 이 건 학



주소 : 35 PRIMROSE AVE. TORONTO M6H 3V1
전화 : 533-8507, 533-8508(B), 439-6548, 266-8925(R)

LISBON Auto Collision Inc.

LISBON AUTO COLLISION INC.

美、對蘇·波 추가制裁

레이건、就任 1周맞아 會見

"폴란드事態더욱惡化 / 팔레스타인自治 가장큰 難題"

【워싱턴19日AP=聯合】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對폴란드、對소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긴 했으나 아직도 폴란드계엄상태는 악화일로에 있다고 말하고 폴란드사태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추가제재조치를 취할것임을 분명히 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취임 1주년을하루앞둔 이날백악관에서가진 7번째 기자회견에서 『폴란드사태가 개선되기를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다』고 강조, 새로운 추가제재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으나 새로운조치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폴란드 사태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조치는 분명히 효과를 거두었다』고말하고 교황 요한·바오로 2세도 자신에게 메시지를보내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제재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란드계엄당국의 사태상화주장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국민들이 여전히 투옥되고 자유노조나군정당국、그리고 국민들간에 아무런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할수있는 몇가지 조처들을 유보해왔으나 사태호전을 무한정기다리지는 않을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취할수 있는 여러조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 중동문제에 언급,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는 이지역에 있어서 미행정부가 직면하고있는가장 힘든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언급한 주요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계획=정부의 감세조치가 효과를 거두고있으며 경제가 부양되고 실업률이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정보누출=정부는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외교정책수행능력을 보호하기위해 정보누출방지에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것이다.

▲리처드·앨런 前국가안보보좌관=리처드·앨런 보좌관문제=앨런 보좌관이 아직도 대통령고문의 一員으로활약하고있다.

▲군사력증강=국방태세가 훌륭하게 다져지면 생산된 각종 가공할 무기들이 사용될 필요가 없어질것이다.

군축회담에 있어서도 상대측이 회담실패시 미국이 군사력증강태세를 갖출것이라고 확신하면 군축회담이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

◇거리누비는 印 폭동鎭壓경찰　인디라·간디印度首相의 政敵들이 19일 올기해 24시간동안의 전국총파업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印度폭동진압경찰이 뉴델리市에 인접한 舊都 델리市의 거리에서 경계를 펴고있다. 【델리19日AP電送=聯合】

"中東의 親·反西方 정보기관들 붉은旅團에 資金지원"

伊基民黨首 비난

【로마19日UPI=聯合】 플라미니오·피콜리 이탈리아 기민당수는 19일 외국정보기관들이 이탈리아를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기위해 제임즈·도지어 미육군준장을 납치한 지하테러단체 『붉은여단』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콜리당수는 이날로마의 아베니레지와의 회견에서 중동의 친서방및 반서방정보기관들이 붉은 여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붉은 여단은 과거에는 자발적으로 무기구입을 위해 강도질을 했으나 현재는 해외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있기 때문에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기위한 활동에만 전념할수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콜리당수는 붉은 여단의 장비가 지난 78년 알도·모로 이탈리아 수상 납치살해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국가혼란계획의 일부라고말하고 붉은여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무기와 서류들은 여러가지 증거물들은 붉은여단이 우수한 무기를 갖추고 국가혼란계획을 계속 추진하고있음을 증명해주는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설5면

"對美외교관계 格下不願 / 中共、당분간强硬策안써"

【北京19日UPI·AP=聯合】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문제로 미·중공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있는 가운데 중공 외무성고위관리는 19일 중공당국이 당분간 대미강경책을 구사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중공외교관계가 격하되지 않을것임을강력히시사했다.

이 고위관리는 이날 유럽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신원이 밝혀지기를 거부한 대만문제가 중공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종공은 대만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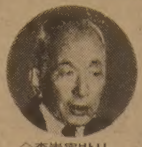
중공당국은 北京과 워싱턴에서 계속 토의할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현안문제를 놓고 미·중공이 최근에 시작한 협의과정에는 『시간제약』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문제와 네덜란드의 對대만잠수함 판매문제간에는 근본적으로 성질상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나무 海軍力에 기여 컸다

李崇寧박사 「李朝松政考」 이색論文

建國初부터 「松木禁伐」 강력主唱 / 世祖實錄 "1株베면 杖1백대" 重罰 / 造船·火田放火등 남획… 保護엔 실패



◇李崇寧박사

소나무는 오늘날엔 자연보호의 측면에서 다른나무들과함께 보호되고 있지만 朝鮮朝시대에는「松政」(소나무에관한행정)이라는 별도의 행정용어가 제정될정도로 국가에의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육성되어왔었다. 또 朝鮮朝의 最高法典인「經國大典」에는「松木禁伐」이라는 조항으로서 소나무 盜伐을 규제, 「나라의 나무」로까지 보호해왔으나 朝鮮朝가 갖는 특유의 사회제도, 兵船증강문제등으로 소나무보호는 결국 실패한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에대한 이같은 보호·육성史는 李崇寧박사(학술원회원·국어학)가 최근 學術院논문집 제20집에 발표한「李朝松政考」라는 이색논문에서 밝혀졌는데 李박사는 朝鮮朝시대의 소나무보호는 자연보호가 아닌 海軍力(兵船)의증강을위한 국가적견지에서 규제됐었다고 지적했다.

李박사는 자신이 이번에 松政史를 연구하게된것은 그의 전공과는 거리가 먼것이나 산악인으로서, 또자연보호중앙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운동을 實錄을통해조사, 연구하던차 여러문헌에 접하게된것이 그계기가 됐었다고 밝히고「松政史」는 우리의 生活史의 일부로서이해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朝鮮朝때의 거북선의 모형도. 당시 兵船의 제조엔 거의 나무를써 산림이 황폐했었다.

李박사에의하면「松木禁伐」은 朝鮮건국초부터 강력히 주창되어왔다. 이를 朝鮮朝 最古법전인「經國大典」(1469년 제8대 睿宗元年 완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면 經國大典이전에도 법전에서 이를 규제해왔는데 世宗때는 이미 소나무의사정이 황폐화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世祖實錄에는漢城府 外의 관리나 山直이가 無責한데 길이들어 조사와감독을 잘하지 않아서 造船에 쓸 재목까지 마구 베어가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이제부터는 官家나 양반의 집도 造船에 쓸 소나무가 아닌것을 사용하고 庶人의 집은 雜木을 사용하라」고 實錄에는 또 서울부 소나무있는 산에선 착실하고부지런한자를 추려 山直이를 삼도록했으며 犯法者에대한 처벌이 무려 자세하게 기록돼있다. 가령▲소나무 1株 또는 2株를 베면 일반인은 杖1백대, 山直이는 杖80대, 관리는 笞40대 ▲10株이상을 베면 일반인 杖1백대 全家이사, 山直이는 杖1백대에 充軍, 관리는 杖1백대에 罷職등 重罰을 내리도록했다.

이같은 벌칙은 經國大典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經國大典에서는 자연보호에 관한 법규가 工典의「栽植」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있다.

李박사는 朝鮮朝가 松木禁伐을 강력히 내세웠었으나 그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松木의 産出은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그 까닭은 高麗시대부터의 餘勢로 소나무생산의부족과 용도의 확대에서 오는 부자연한 관계가 朝鮮朝에 그대로 계승되어 내려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李박사에 의하면 朝鮮朝시대의 松政실패 이유로서 兵船조제, 田獵에서의 山에 방화, 火田으로 山에 방화, 山田의 개간, 가옥건축등을 들었다.

우선 兵船과 松政과의 관계문제는 朝鮮朝가 건국초부터 倭寇를 막고자 해군력증강을 꾀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太宗實錄은 우리해군 兵船의 總計와 增艦의필요성을 제기하고있는데 旣存兵船은 4백28척이나 새로 1백85척을 增船코자 하고있다.

그런데 우리의 兵船은 世祖때에 들어오면 총7백39척이되나 이후부터는 이들 兵船의 수명이 짧고 교체가 빠른반면 松材의 수요가늘어 松政이 점점어려운 사태로 들어서는것으로 나타난다. 中宗實錄에의하면 兵船의 평균수명은 5~8년으로 되어있으나 다른문헌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것으로 나타난다.

兵船건조다음으로 松政의 장애물은 火田이었다.

李박사는 朝鮮朝당시 火田의 피해가 막대한것이었지만 각고을에선 이를火田民들에게서 오히려 세금을거두어 松政실패를 가속화했다고 지적, 火田에서까지 火田에까지 松政을 마비 시켰다고 말했다.

이밖에 田獵의 山火문제로서 사냥을위해 인위적인 放火가 성행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放火는 成宗때에 크게 문제가돼 成宗은 下書, 각 道의 觀察使에게 松政에있어 이들문제를 엄히 근절토록 명령하였다.

李박사는 松政이 고려시대부터 큰 문제거리였으나 松政에 대해 여러 면에서 지적하고있는데 재미있는 것으로 고려시대의 송…

中宗實錄에와서 번성하게 벌목이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朝鮮朝에 들어오면 송충이는『災害』이지만 『人力으로 능히극복할수있는것』으로 이해되고있다.

李박사는 朝鮮朝시대에는 松政을 이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밝히고 그까닭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는 일반국민이 松政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면 어떤처벌을 받는다」는 위협만으로는 안된다.

둘째는 松政을맡은 관리들의 한계가 뚜렷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松政이 걸음보다는 미봉적인 법에따르는 행정이었다.

넷째는 兵船의 補充개조로 山林의 황폐화가 심각했다는 사실이다.

다섯째는 朝鮮朝의 사회제도로서는 松政이 성공할 수없다는 것이다. 가령 兵船을 만드는 기술자는 船匠이라고해서 사회적대우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백성도 가능하면 이같은 직장을 택하지않아 松政에대한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丁薰기자】

波、官製勞組 복귀조짐

社會淨化委 "勞組員에 엄격한統制" 선언

【바르샤바20日UPI=聯合】 폴란드내각의 사회정화위원회는 19일 폴란드 노조들이 앞으로는 엄격한 통제를 받을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자유노조탄생이전과 같은 관제노조로의 복귀를 시사했다.

같은날 로마·가톨릭교회의 한 고위소식통은 공산당정권이 구랍13일의 계엄선포이후 체포된 5천여명을 영구수용소로 이감하고있는것은 계엄령이 장기간 지속될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폴란드가톨릭교회의 26개 교구주교들은이날바르샤바에서 요제프·글렘프대주교의사회로 국내의 긴장상태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기위해 비상회의를 열고 가톨릭교도들에게 특별 메시지를 보내는한편 軍政지도자 보이체흐·야루젤스키에게 공동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印 전국罷業 종식

최소8명死亡…勞組선 "大成功"

【뉴델리20日AFP=聯合】 인도노동자들은 20일 9시30분(한국시간)을 기해 최소한 8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24시간동안의 전국적인 반정부파업을끝냈다.

수천명의 노조지도자및 행동대원들이 당국에 체포된가운데 단행된 이번 파업의 성과에 관해 노조지도자들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하고있으나 공식보도들은 많은노동자들이 파업에 가담하지않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8개주요 노조와 야당이후원한 이번 파업은2년전 인디라·간디수상의 권좌복귀후 가장 강경한 도전으로 지적됐다.

파업시작직전 6천명이 체포됐으며 파업도중에 발생한 충돌로 벵골주에서는 4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했다.

이번파업을 주도한 한 세력의 대변인은 파업으로 은행·보험회사·신문사·통신사및 2개석유회사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나이 철수 이·埃間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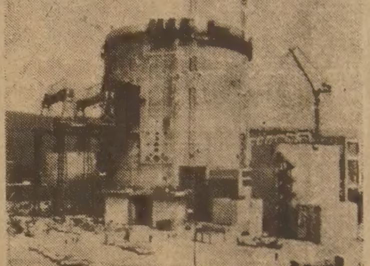
【카이로19日AP·AFP=聯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19일 이집트가 시나이반도 남부에 설치된 이스라엘의 시설물을 매입하는것을 포함, 이스라엘의 시나이반도 최종철수에 따른 주요문제들을 타결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이 밝혔다.

이 협정은 카이로를 방문중인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과 알리외상이 이틀간 회담한끝에 체결되었다.

양국은 또 오는 4월25일 이스라엘이 점령 시나이반도로부터 완전철수하기 이전에 미해결문제를 타결지어 최종적인 협정을 마련하기위해 오는 3월25일 이스라엘에서 양국외상이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샤론국방상과 알리외상은 이날 대부분의 현안들이 타결되었다고 말했으나 라파지역국경문제등이 미해결상태임을 시사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철수와 관련, 최종적으로 구체적인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만난 샤론 국방상은 회담후 지난 67년6월의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紅海의 무인도인 티란과 시나피르의 지위등『복잡한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砲擊받은 佛原電　18일밤 프랑스反核운동자로부터 對戰車바주카砲의 공격을받은 크레이말빌에 건설중인 세계최대의 고속증식로 核發電所의 모습. 이사진은 사고가 있기전에 촬영한것. 【리용(프랑스)19日AP電送=聯合】

가나 軍民대학살

작년 쿠데타후 7백여명

【라고스(나이지리아)18日AFP=聯合】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군사쿠데타이후 불과 20여일간 가나에서 7백여명이 사망했다고 가나의 前민간정부관리가 18일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않은 이관리는 최근 나이지리아로 피난온 목격자의 말을 인용, 민간인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前政府에 충성하는 군인들도 살해되었다고 말했다.

이관리는 1백여명의 군사정보요원들이 새정권에 위협분자로 간주되어 사살되었고 아크라의 군병영에서 더많은 처형이 비밀리에 자행되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여인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했다.

보는앞에서 살해되었고 특별 위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으나 저명인사들은 처형을 모면했다고 이관리는말했다.

가다피의 政治哲學 援用

쿠데타로再執權한 가나 롤링즈大尉

【아크라AFP=聯合】 서부아프리카에서 지난해 12월30일 軍事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장악한 제리·롤링즈퇴역공군대위(34)가 재집권후 취한 최초의 공식조치중 하나는 외교관계단절로 철수했던 리비아人들을 다시 불러들인것이었다.

이 리비아人들은 힐라·리만 前가나 대통령의 민간정부시절 리비아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한지 13개월만에다시 가나땅에 돌아온것이다.

30개월만에 두번째로 쿠데타를통해 재집권한 롤링즈퇴역공군대위는 집권후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회의장의 일부 정치철학을채택해오고 있는것같다.

롤링즈대위는 집권후 부패척결을위한 『聖戰』수행을선포하고 全國의 도시와촌락에 인민혁명위원회를설치했으며 軍을 人民,陸·海·空軍으로 개조하는동시에 인민 혁명법정을 설치했다.

롤링즈대위의 측근소식통들은 그가 정치를 떠나있던 지난 2년동안 탐독했던 서적중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다같이 반대하는 정치이론이 기술돼있는 가다피원수의 綠色書가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롤링즈대위는 이 기간중에 쿠바를 방문한직후 적어도한번은 리비아를 방문, 가다피원수를 만났다.

그러나 롤링즈대위가 리비아를『革命의理想鄕』으로추켜세우고 있을 즈음에 그가 첫번째 쿠데타이후 정권을넘겨주었던 리만前 대통령은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할 준비를하고있었다.

가나는 지난80년11월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西아프리카의 영향력있는 국가들이 가다피원수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전복하기위한 활동을지원하고있다고 주장, 리비아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에동조, 對리비아관계를 단절시켰다.

◇롯솔리니 孫女　이탈리아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뭇솔리니의 孫女 알렉산드리아·뭇솔리니양(18)。마 TV쇼프로에 출연 올누드로 나온모습. 아버지는 재즈피아니스트로마노·뭇솔리니, 이모가 소피아·로렌이다. 【뉴스위크】

海外토픽

리보核酸 합성成功 ★中共 13년간 硏究개가

중공과학자들은 생체세포의 구성요소인 리보핵산(RNA)의 한종류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내는데 성공, 의학및 유전공학발전에 획기적인 영역을개척했다고 北京방송이 19일보도했다.

이방송은 上海 생화학연구소의 핵산실험팀 과학자들은 13년간에 걸친 연구끝에 인자로부터 세포핵에 유전정보를 운반해주는 알라닌轉移리보핵산(T-RNA)을 합성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北京=AP·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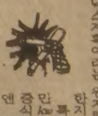
★시베리아 住民 以寒治寒 영하40度속 수영복

시베리아의 일부 가족들은 영하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속에서의 건강유지를위해 수영복만 입은채 밖에 나와 눈으로 몸을 문지르는 등 이한치한(以寒治寒)식 피한법을 쓰고 있다.

관영 타스통신은 시베리아 이지방에 사는 일부 가정에서는 혹한이 건강에 최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으면서 이같은 치한법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스크바=UPI】

메아리

테러리즘



아·서독·일본등이다. 라틴 아메리카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공격목표가 미국이 될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지난해 취임때 「국제테러리즘이 이제 온세계에 만연되었다」고 경고했다. 「풍요한 사회의 망나니」로 표현되는 현대의 테러리즘은 철저히 예방되고 응징 되어야한다.

프랑스의 핵발전소에 대한 공격은 정말 소름이 끼친다. 프랑스는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해 피닉스계획이라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지 이미 오래다.

특히 그들은 1機로 1백20만kW를 발전할수있는 해고속증식로에 관심을 쏟아 내년엔 상업 발전을 목표로 건설을 서두르고 있었다. 2천년대엔 발전의 55%를 원자력에 의존할 계획이다.

그동안 反核세력의 반대 또한 치열했다. 이들은 원자로건설 자체가 폭력이라고 비난하기도했다. 고속증식로의 콘크리트벽에 소련제 로키트를 발사한 것은 이들 반핵세력인 자칭 평화주의자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이뤄질수없다. 테러리스트들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을 생각할때 전율감은 더 커진다.

테러리즘의 극성으로 세계는 연초부터 바꾸긴장하고있다. 레이건과 교환저격, 사다트 암살의 충격이·가신듯하더니 유럽에선 잇달아 납치, 피살, 로키트공격등의 폭력이 터져 나왔다.

이탈리아의 붉은여단이 미국의 도지어장군을 납치했고 파리에선 미대사관부관이 괴한에의해 쓰러졌다. 프랑스의 리옹부근에 건설중이던 세계최대 해고속증식로가 소련제 포탄의 공격을 받았다.

폭력과의 싸움은 정체불명인 적과의 전쟁이다. 테러리즘은 정치살인과 비이성주의에의해 증독된 독버섯같은 존재다. 그 피해를 가볍게 보아 넘길수없다.

한 이스라엘 학자의 조사론 70년부터 80년까지 테러의 피해는 상상을 넘어선다. 10년사이 사망자가 9천7백여명, 부상자는 1만명을 웃돈다. 재산피해는 8억달러에 달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확실한지는 알수 없으나 테러의 심각성을 입증하기엔 충분하다고 하겠다.

몇년전 美CIA추계에 따르면 세계 50여개국에 1백40개 이상의 국제테러조직이 있어 암약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들의 주무대는 자유와 질서가 균형을 이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탈리

CMC 캐나다 밍크센타 모피

유일한 한국인의 털도매상

털공장에서 직접세일

특별세일기간 : 1월말까지

각종 모피 도매와 각종 털 가공품을 도매하고 있는 카나다밍크센터에서는 각종 털제품을 고포들께서 직접 털공장에서 마음껏 선택하시며 도매값으로 구입하시도록 매주 금, 토 양일에 공개전시및 판매하오니 많은 구경과 애용 바랍니다. (특히 미국이나 타주에서 털사업을 계획하신 분들의 안내와 지도를 하고 있아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품목 : 남녀노소 각종 털옷, 각종 털모자,
각종 털목도리, 각종털칼라, 각종 스톨,
각종 케이프, 각종 자켈트, 각종 모피

때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장소 : 캐나다 밍크센타

1422 - 1424 QUEEN ST.W.3층

전화 : 535—7878

한국속의 美國 大衆文化

無批判 흡수로 固有文化 질식
知的인 모험 포기 自我喪失 우려도
健全한 娛樂으로… 雷同해선 안돼

<TV의 境遇> 李泰柱교수 寄稿

◇李泰柱교수

TV는 대중문화의 핵심적 매개체로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TV의 대중문화적 성격과 특징, 미국의 TV문화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廣場」 1월호에 실린 李泰柱교수(檀國大·영문학·연극평론가)의 「美國의 대중문화와 한국의 대중문화―TV의 경우」를 간추린다.

대중문화의 본질은 대중들의 오락적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량생산된 소모품문화라는데 있다. 말하자면 오락을 생산하는 문화산업이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대중의 취향에 적응하려고 대중이 획일적으로 수용하는 표현양식을 취한다. 대중이 만족하도록 모방하고, 계획되고, 제작되며, 대중의 센티멘털리즘과 현실도피,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관능에 호소하고 있다.

TV는 대중문화의 이같은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때문에 광범위한 파급효과와 영향력을 미칠수있지만, 아이로니컬하게도 이속성이 발휘하는 부정적측면때문에 뿌리깊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TV는 미국의 현실앞에서 수동적반응을 일으킬뿐이지 능동적인 행위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문화가 TV의 표현양식을 빌어 우리문화 속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온데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그 수용태세에 있다. TV가 지니고있는 오락적기능은 영상에 마취당한 무비판적인 대중을 양산하기 쉽고 이렇게 양산된 대중들은 미국의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고유문화를 침식시키는 마력이될 수 있으며 우리의 문화는 퇴폐하고 우리의 정신은 황폐해져 정신문화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美國 대중문화의 특색은 많은 시간동안 TV앞에 앉아있더라도 대중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 쉽사리 합류하지 않는다. 대중문화는 오락적 기능의 발휘에 목적이 있다는것을 자신이 인식하고있기 때문이다. 美國의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화해야하는 우리의입장도 이런시점에 서 있어야 한다.

대중은 대중문화에 마취당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 대중문화가 외래문화의 모방일 때 그 대중문화로부터의 탈출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그 탈출은 고급문화에로의 점진적 진입이다. 그러나 우리TV문화는 대중문화를 보다더 저질화시키고 고급문화에로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준다.

전자매스미디어의 발전이 인간의 지각, 생활양식, 전달과 수용방식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한것은 확실하다. 이같은 변혁은 대중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TV화면으로부터 오락과 정보가 일시에 쏟아져 끈질긴 주의집중력없이도 문화를 향유할수 있게 만들었다. 때문에 대중문화는 저속화되고 산업화되어 예술적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있다.

이시대의 우리문화의 성향은 다분히 미국적대중문화의 특징을 닮고있다. 언어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노력을 멀리하고 다이제스트된 문화를 안일하게 감각적으로 흡수하려는 경향. 이런경우 타율적인 수동만이 미덕으로 남게된다. 지적모험의 포기와 자아상실, 창의력의 고갈, 쾌락주의와 물질만능과 배금주의등이 판을 치는 문화가 될것이다.

TV라는 대중문화가 상대하는 수천만의 시청자들은 결국 대중문화의 자기중심적 이익추구의 속성때문에 고독한 운명을 면할 길이 없다. 고독은 소외감을 낳고 소외감은 불안의 요인이요, 절망의 지름길이 온상이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자기 합리화의 구실을 만들어준다.

따라서 自我와 사회와 세계를 개혁하는 의지를 기르지 못한다. 그래서 대중문화는 도피의 문화다. 노력하고 고뇌를 되씹는 자기희생의 고귀한 문화적 가치를 오늘의 대중문화는 잃고있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벗어나서 주변의 바깥을보는 눈이다. 자기를 초월하는 그 눈의 탐색은 인간가치에대한 모색이다. 그것은 곧 창조적인 참여이고 문화는 이같은 참여의식이 만들어낸다.

金慈玉 브라운管에 복귀
1년5개월만에 週間劇서 주연

지난 80년 9월 가수 崔白虎(33)와의 결혼과함께 브라운관을 떠났던 탤런트 金慈玉(32)이 은퇴 1년5개월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오는28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KBS 제2TV의 주간연속드라마「사랑의 조건」(趙南史극본·李鐵旭연출)에 주연으로 출연하게 된것. 金慈玉이 KBS에 출연하기는 8년만이며 현재 MBC라디오의 「사랑의 계절」에만 출연하고있다. 「사랑의 조건」은 한 여자의 기구한 애정편력을 그릴 멜로드라마로 金慈玉은 그의 은퇴작 「종점」에서 함께 출연했던 朴根瀅과 다시 공연한다.

金慈玉은 결혼후 평범한주부로 살아왔으나 『컬러TV에 매력을 느꼈고 작품이 마음에들어 출연을 결심했다』며 『신인의 자세로 혼신하겠다』고. 그러나 『영화나 다른작품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연여부를 놓고 며칠간 말다툼까지 벌였다는 남편崔白虎도 『본인이 하도 원하는바람에 응낙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부부는 올해안에 아기를 가질 계획이라고.

「사랑합시다」警告 作家등엔 注意도

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姜周鎭)는 MBC·TV의 일일연속극 『사랑합시다』에 대해 경고처분하는 한편 처음으로 작가 金秀賢씨와 연출가 柳興烈씨에게는 주의를 환기시켰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사랑합시다」에서 ▲가정질서와 순결을 해치고 웃어른에대한 불경한 언동 ▲저질스럽고 비속감을 주는 장면이 방영됐고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인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으며 ▲동창인들과 같은처지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었다는 이유에서다.

「사랑합시다」는 매회여의 林鉉鎬이 대입학력고사에서 1백15점을 받자 『동회나 우체국같은데나 취직시키세요…』 부유한 의학박사의 딸이 동회나우체국같은데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라는 대사가 방영되어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었다.

바둑소식

曺8단 國棋戰예선서 先頭
日棋聖戰 도전 林海峯1승

●…지난13일 거행된 제7기 國棋戰본선리그 제17국에서 白을쥔 鄭壽鉉4단은 執黑의 徐能旭6단을 3백7수만에 6호반차로눌러이겼다. 이로써 鄭4단은 2승3패, 徐6단은 3승2패를 각각 기록했다. 총21국가운데 17국이 두어진 國棋戰본선리그는 曺薰鉉8단이 4승으로 단독선두를 달리고있어 타이틀보유자인 徐奉洙7단과 도전권의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일본바둑계의 가장큰 이벤트인 제6기 棋聖戰(讀賣新聞주최)도전7번기 제1번승부가 지난13·14양일간 야마사끼(宮崎)의 야마사끼호텔에서 막이올라 도전자 林海峯9단(사진)이 후지자와 슈꼬棋聖(藤澤秀行)을 눌러 서전을 장식했다. 棋聖戰은 타이틀상금만도 2천만엔(円)(韓貨6천만원)이나되는 일본제일의 棋戰으로 후지자와棋聖이 지금까지 5회나 연속 타이틀을 방어해왔다. 이번에 도전자로 나선 林9단은 최근 몇년전까지만해도 일본棋壇을 석권했었으나 현재는 無冠인 상태. 그러나 이번 棋聖戰에서는 趙治勳名人·本因坊을 꺾고올라온 고바야시9단(小林光一)을 맞아 최고기사 결정전에서 2-0으로격파, 도전자로 선발됐다. 林9단은 지난제4기때도 도전자로서 후지자와9단과 맞붙었으나 4-1로 패배, 이번도전기는 그설욕전이 되는셈이다.

◇林海峯 9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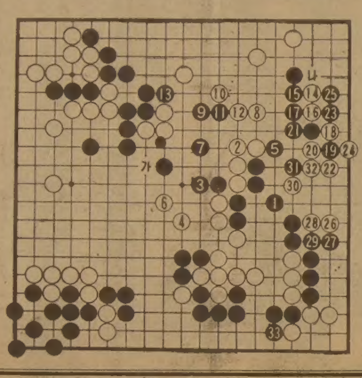
●…지난16일 어린이 회관에서열린 어깨동무社주최 제1회 어깨동무바둑王 대회에는 전국에서 1백여 어린기사들이 참가했다. 棋力13급이상의 국민학교 재학생들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 가組(1~3급)에서는 김영환군(부산낙동국교 5년)이, 나組(4~7급)에서는 최홍진군(부산연미 3년)이, 다組(8~9급)에서는 양한결군(서울中大부속6년)이, 라組(10~13급)에서는 김형수군(서울 우신6년)이 각각 우승했다.

●…제13회롯데盃쟁탈전국아마바둑最高位戰과 제2회 여류아마바둑最高位戰이 30일부터 2월1일까지 釜山한국기원 서면지원에서 개최된다. 釜山日報와 롯데그룹이 주최하는 이대회의 참가금은 3천원(전화 釜山 67 2 4 8 2).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第6譜101～133 (갈5시간 덤5집반)

白 (5段) 張秀英 <3勝>
黑 (6段) 徐能旭 <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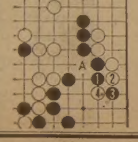


張5단은 오늘따라 바둑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다. 틀림없이 최선을 다하는데 뜻과달리 「엉뚱한 결과」만 계속 빗어진다 할까. 어딘가서 승부수라도 던지고싶다는듯, 이무렵 시간을 마냥 소비하고 있다.

우변 黑집이 黑5까지 굳어졌을 때는 무려 31분이나 생각한끝에 마지못하여 白6으로 대마의안전을 꾀했다. 생각같아서는 白6을 「가」자리에 건너붙여 차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역시 결과가 별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단 화해할뜻을 표명했던 것이다. 徐6단은 상대가 늦춘 기회를 잡아라도하듯이 黑7에 뛰어 白8을 강요하더니 黑9, 11을 선수하고 13. 마침내 白의기둥말 3점을 잡아버렸다. 張5단 고개를 갸웃하며 5분을 생각한끝에 우상귀에 白14로 뛰어 들었다. 진작부터 잔뜩 노리던 곳이다.

黑 安全第一主義

黑15는 2분. 徐6단은 이수로 「나」쪽을 막으면 어떨까? 두세번 망설였지만 원체 형세가 유리한 때문에 안전제일로 마무리지을 요량이다. 이리하여 白16이하 32까지의 변화가 실시에 일어났다. 도중 黑19로 참고도의 黑1은 白2때 黑3으로 막지 못한다. 막으면 白「A」로 끊는수를 보며 白4로 끊는수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전처럼 白32까지는 부득이한 교환이었다. 白은 우변에서 대득을보았으나 그 대신 우하귀쪽이 알궂게 되었다. 【一凡】



언더우드家의 韓國土着化
나의 이력서 <聰李·元一漢> 元一漢 ㊲

夫人의 나이많은게 結婚상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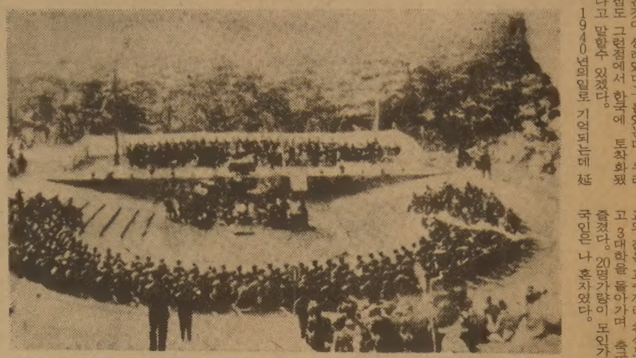
나는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지 2년만인 1941년7월 존·비다·데이비슨(한국이름 태요한)과 결혼했다. 장인 H·W·데이비슨氏는 영국사람으로 1901년 한국에 와서 보험·여행회사등을 경영한바있는 사업가다. 존·비다·데이비슨은 서울외국인학교를 나보다 2년앞서 다녀서로 사귈틈이 없었으나 그의 남동생과는 친했다.

그는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영국런던대학에 진학했고 나는 뉴욕 해밀턴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한국에 돌아왔는데 둘이 도착한시기가 거의 같았다. 우리들은 선교사 모임에서 자주 만났다. 한국에서는 젊은 서양남녀가 만날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친해졌다.

한번은 내가 세브란스병원에서 몹씨 고통스러워 하고있을 때 데이비슨이 찾아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동정과 사랑은 동질의 것인지도 모른다. 선교사 모임에참석, 회계보고등을 들을때는 아주 지리해 우리집에 가자는등의 약속등을 하면서 지리함을 달래기도 했다.

나의 아내 데이비슨이 나보다 2살위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집안의 내력이 그러하다. 할머니(릴리아스·호톤)는 할아버지(元杜尤목사)보다 무려 5살이나 많았고 어머니(에델·반·와그너)는 아버지보다 2살위였다. 나는 존·비다·데이비슨과의 사이에 아들만 셋을두었는데 우연치않게도 장남을제외한 두아들의 나이가 며느리보다 2살씩 아래다. 내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한국에서는 부인의 나이가 남편보다 더많은것이 상례였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도 그런점에서 한국에 토착화됐다고 말할수 있겠다.

1940년의일로 기억되는데 延禧·梨花·세브란스등 3개 전문학교의 젊은 교수끼리 친선모임을 갖고 3대학을 돌아가며 축구게임을 즐겼다. 20명가량이 모인가운데 외국인은 나 혼자였다.



◇1940년 延禧전문학교 창립25주년 기념식광경。나는 이해초부터 延專에서 영어강사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연히도 祖父부터 나까지 2-5세 아래

첫모임은 延禧전문에서 있었는데 게임을 마친후 과일을 대접했다. 두번째는 梨花에서였는데 기숙사에서 저녁식사를 마련했었다. 세번째 모임장소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였다. 이학교는 식당이 없어 시내음식점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世專측만 본의아니게 큰부담을 안게되었다. 이때문인지 젊은교수들의 친선모임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모임이 실패하고 만것이다. 나는 이 친선모임에 참석, 배우는것이 많았는데 더 계속되지못해 섭섭함을 금치못했다. 한국사회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치중, 때때로 뜻있는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이때 느꼈다.

그해(40년) 여름방학에는 데이비슨이 그의 가족해수욕장이 있는 동해안 花津浦로 나를 초대했다. 나는 우리집 가족해수욕장인 서해안 九昧浦를 들러가기로 했다. 서해안서 동해안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당시11세인 나의막내동생·그레이스·마가렛(한국이름 은혜)과 같은 선교사의 딸과 동행했다. 당시 17세인 그녀는 큰아버지네 집에 혼자 보낼수없던 차에 나에게 동행책임을 맡긴 것이다.

기차안에서는 한국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저렇게 젊은부부가어떻게 저런 큰 아이가 있을까?』하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내나이가 만23세였고 그이듬해 결혼했지만 결혼나이까지 한국에 토착화된 것은 아니었다.

稅率변동 컬러TV·VTR등
값調整 業界에 지시

상공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에따라 ▲세율이 변동된 칼라TV, 냉장고, VTR, 전축등 가정용 전자전기제품가격을 조정토록 업계에 시달했다.

상공부가 전자공업진흥회를 중심으로 관련업자의 의를 얻어 확정한 주요家電제품의 소비자가격 조정내역을 보면 세율이 인상된 컬러TV20인치와 대형냉장고(2백80리터이상)등 2개품목 27개모델의 가격이 4·5~17%가 인상된반면 VTR, 흑백TV, 앰프등 세율이 인하된 13개품目 2백47개모델은 가격이 5~42%까지 인하되었다.

주요제품의 가격조정내역을 보면 20인치 컬러TV의 경우 특소세율이 40%에서 28%로 12%인상됨에따라 소비자가격은 11%가 인상되어 대당판매가격은 모델에따라 41~55만7천원으로 조정되었고, 대형냉장고도 11·4%가 인상되어 소비자가격은 4만4천원(대한2백70ℓ)에서 82만3천1백원(삼성5백ℓ)으로 인상되었다.

이에비해 VTR 전자레인지 앰프 흑백TV등은 세율인하에 따라 그만큼 가격도 내렸는데 삼성전자의 VTR는 종전소비자가격 98만원에서 67만8천원으로 31%가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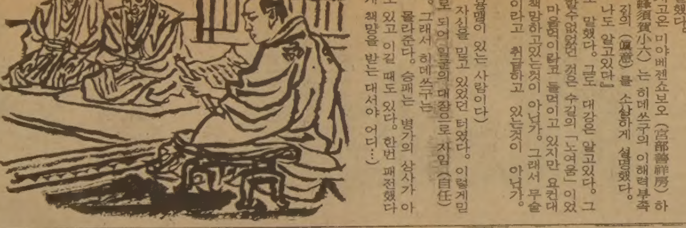
팝뮤직鑑賞會열어

홍수처럼 밀려드는 팝뮤직을 국내에 정착하고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팝뮤직 감상회가 22일하오7시 종로1가 뉴아세아음악실에서 열린다. 레코드사 大星음향이 매월 정기개최예정으로 마련한 첫감상회에서는 돈·윌리엄즈의 『Especially for you』, 『롤링스톤즈·롤린즈밴드』의 『This is the way』등이 소개되며 신인 趙仁淑이 『나는 가리라』등을 부를예정. 초청연사 李良一(경음악평론가)。

「歌謠史의 證人」 앨범판으로 出刊

원로가요작가들의 면모를 정리한 「歌謠史의 證人」이 한국가요반세기 작가동지회(회장半夜月)에 의해 출간됐다. 가요서적출판사인 「一世光」이 제작한 이책에는 한국가요반세기를 살아온 원로작가들의 이력이 정리돼있다.

流星의 賦 <28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⑲



수길이 히데쓰구에게 보낸 편지엔 다음과 같은 문면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장차 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과 같은 마음머리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것은 하늘이 수길의 이름을 남기지 말라, 절가(絶家)하라고하는 뜻이 아닐까 해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히데쓰구는 그 편지의 진의(眞意)를 깨닫지 못했다. 편지를 읽고나서 그는

『내 무술이 서툴다는 말인가』

하고 엉뚱한소릴했다.

그편지를 가지고온 미야베쇼보오(宮部善祥房)하찌스가고로꾸(蜂須賀小六)는 히데쓰구의 이해력부족에 놀라 수길의 진의(眞意)를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런것쯤은 나도 알고있다』

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는 대강은 알고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할수없었던 것은 수길의 「노여움」이었다. 마음 먹이, 마음이라고 들먹이고 있지만 요컨대 전쟁에 진것을 책망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술이 모자란 결과라고 취급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나는 원래 용맹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던 터였다. 이렇게밀는것이 출판으로 되어 일군의 대장으로 자임(自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히데쓰구는

(숙부는 그걸 몰라준다. 승패는 병가의 상사가 아닌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한번 패전했다고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는 대서야 어디…)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입 밖에 낼 순 없어서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두사람을 향해 낮은 소리로 물었다. 그 두 사람이면 수길의 노여움을 푸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매사에 있어서 측근에 있는 숙로(宿老)들과 의논하셔서 행동하시는게 좋을줄 압니다』

하는 것이 미야베와 하찌스가의 대답이었다.

수길이 히데쓰구의 측근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나까무라가즈우지(中村一氏), 호리오요시하루(堀尾吉晴), 히또쓰야나기나오스에(一柳直末), 야마노우찌가즈또요(山內一豊)들이었다. 이들은 수길이 오다가(織田家)의 신하로 있을 무렵부터 소중하게 길러 영주(領主)로까지 입신시킨 자들이다. 한데 그들에겐 온건하고, 상식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있어 그저 무사주의(無事主義)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 까닭에 히데쓰구를 인형(人形)처럼 취급하고 수길에게 대해선 언제나 듣기좋은 소리만을 했다. 그래서 수길은 어느덧 그들의 말을 믿게되어

(나이가 드니 사람이 되는군)

하고 좋아했다.

히데쓰구 18세가 되었을때 수길은 기주(紀州) 정벌(征伐)의 부장(副將)으로 임명했다. 다행하게도 그때 대과(大過)가 없었다. 그 공으로해서 수길은 히데쓰구에게 하시바(羽柴)란 성(姓)을 주는 동시에 오오미(近江)의 땅을 주었다. 그리고 조정에 주청(奏請)하여 종사위 우근위중장(從四位右近衛中將)의 벼슬에 오르고 이듬해 19세땐 참의(參議)가 되었다. 참의라면 공경(公卿)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②

녹슨대문, 낡은집의 일부처럼 늘 닫혀있어 틈이 탐탁치않고 옷차림에 무신경한 사모님이 오늘따라 화려한 한복차림에 화장까지 곱게하고 호들갑스러울정도로 명랑했다.

『아이들 다잘 있어요? 원장선생님도 안녕하시고요?』

사모님의 변덕이 놀랍기도 하고 막연히 불편하기도 해서 수지는 인사말을 하다가 엉겁결에

『아이들?』

『네 아이들이요?』

『들어와, 못볼께 온 사람처럼 거기 그대로 서 있지 말고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얘기가 기니까』

사모님이 수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집속이 구질구질하고 퇴락하기도 여전했지만 인기척이 없이 괴괴하고 썰렁했다.

『아이들은 다 어디갔죠?』

수지는 떨리는목소리로 추궁했다. 아이들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왔나 봐?』

사모님이 별안간 뻔뻔스러워지면서 딴청을 부렸다.

『난 다 알고 인사차 온줄 알았어』

『딴 말이에요?』

표정이 서툴게 돌변했다.

『간판 내린 거 보고도 몰라? 고아원 아주 그만뒀어. 원장선생님한테 사정이 생겨서…』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 우리가 잡아먹지 않았어』

『사모님도 무슨말씀을 그렇게 모질게 하세요?』

수지는 근일년동안에 몰라보게 천격스러워진 사모님을 거만하게 노려보며 나무라는투로 말했다.

『미안, 미안, 농담이야.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지학생 신세도 많이 졌거니와 끔찍이도 따르고 좋아하더니만…』

사모님이 심난할걸 과장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글쎄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니까요?』

수지가 신경질적으로 따졌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왔어?』

사모님이 달갑지않은 염탐꾼 대하듯 잔뜩 경계하는 투로 말했다. 그러고보니 수지를 흘끔감스럽게 반긴 것도 경계의 가면인지도 몰랐다.

『여기가 망하고 흩한 소문이 서울까지 날만큼 여기가 유명한 고아원이던가요?』

『여기도 올해부터 서울특별시야 왜이래?』

『사모님 제발 딴청 부리지마세요』

『그래,그래, 난 처음부터 수지학생이야말로 다 알고와서 딴청부리는 것 같아서…』

『어째서요?』

『크리스머스는 아직 멀었잖아? 또 빈 손으로 온적도 처음이고…』

그러고보니 수지가 이 고아원과 인연을 맺은지는 십년 가까왔지만 그 동안 겨우 일년에 한번씩 선물을 한보따리 장만해가지고 찾아와서 아이들하고 하루놀다간데 지나지않았다. 중학교때 수지가 그 일을 시작할때만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은 소녀의 귀여운 선행쯤으로 봐주었고 수지 역시 선행학생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가 커질수록 그 일이 쑥스러워져서 이젠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비밀이 되었었다. 그만 인연으로 고아원이 없어진 사정까지 캐어 파고들 자격은 실상 없었다.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BIG SEVEN무역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 : 533-7966 김 영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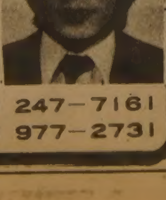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 오후8시30분~새벽1시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 반 광 고 : 최 성 조
●매매구인광고 : 박 경 옥
533-236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學力考査·內申성적 심한隔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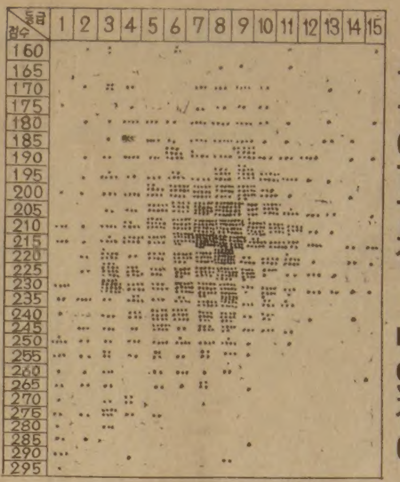
—재수생등 1,300명相談 조사결과

地域·學校차이 고려안돼
한 學校內에서도 不均衡

대입학력고사 성적과 학교성적(내신등급)간에 심한격차가있으며 따라서 학력고사성적이 좋기때문에 내신성적도 좋을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것임이 드러났다. 학력고사성적과 내신등급은 대체로 비례할것이라는 추정을깨고 올학력고사에서는 고득점자가 저등급의 내신성적을 얻는가하면 저득점자가 고등급의 내신성적을 얻을경우가 허다한것으로 나타난것이다.

◇학력고사성적과 내신성적 상관표

등급 / 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0			2			3					1				1
165								1	1		1				
170		1	4	2			3	3	4	2			1		
175	1			1			2	2	2	2					
180		1	1	4	3	2	4	4	2	2	1		1		1
185			1		4	2	4	5	4	1	1		2	1	
190		1	2	4	3	11	5	4	13	3	3	4		1	1
195		1	5	2	3	6	4	11	14	10	4	1	1		
200	1	1	3	4	10	13	14	14	17	7	1			1	
205			2	3	10	12	19	29	9	13	5	3	2		1
210	3	1	4	6	14	15	23	28	22	12	9	2	1		
215	3	1	5	9	9	20	35	26	12	9	5	4		2	3
220		2	9	2	8	13	15	34	6	8	9	1		2	1
225		2	15	10	7	10	14	22	13	5	2	3	1		
230	4		18	8	7	15	17	18	4	9	4	3	2	1	1
235	2	4	2	6	3	6	10	15	3	5	4				
240	1		3	6	12	12	11	11	2	5		1		1	
245		3	3	2	9	2	7	6	3	3	2				
250	5	2	2	3	4	5	4	5	1		1				
255	3	2	4	2	4	2	4	3	1						
260	1	1	3		2	3	1	2							1
265	2	2	2		2	1	4		1						
270	1		2	4			1								
275	2	2	7	2	2										
280	1		4												
285	2	1							1						
290	3			1				2							
295	1														
	36	28	103	81	116	153	201	245	135	96	53	22	11	9	15
총계	1,299														



1등급이 百75점 2백90점이 8등급도

이같은 사실은 正一학원진학상담실(실장 鄭起成·50)이 지난4일부터 12일까지 진학상담을해온 재수생과 재학생1천2백99명을 상대로 조사한「학력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의 상관관계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조사결과에의하면 내신성적이 1등급인 36명중 학력고사성적은 1백75점대 1명, 2백점대 1명, 2백10점대 3명, 2백15점대 3명등 낮은점수대가 8명이나 끼어있어 같은등급내 최고점수인 2백95점대와 최고 1백20점의 점수격차를 보이고있다.

또 낮은 내신성적등급을 따낸것으로보인 1백60점대 8명중 6명이 2·3·6등급의 비교적 상등급을 차지하고있는가하면 상등급을 차지할것으로 기대된 2백65점대 15명중 6명이 7·9·15등급의 낮은 내신성적을 얻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다시말해 학력고사와 내신의 이상적인 형태는 도표의 우상단부와 좌하단부를 축으로 가운데가 불룩한 럭비공모양이 되어야하나 내신성적과 학력고사성적의 분포가 방만하게 흩어져 서로 상관관계를 잃고있다.

특히 우상단부엔 축조차형성되지않고 오히려 비어있어야할 좌상단부와 우하단부에 상당한 분포율을 보이고있어 상관관계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있는것.

특히 28명이속한 내신2등급의 경우 1백60점대에서 2백80점대까지 무려 1백25점의 격차를두고 광고루분포돼있어 전혀상관관계를 보여주지않고있다. 같은 15등급이라해도 학력고사성적은 1백60점대에서 2백60점대까지 점수차가 1백점에 이르고있다.

비교적 낮은 학력고사성적인 2백15점대 1백43명중 1등급3명, 2등급1명, 3등급5명, 4등급9명등 27명이 5등급이상의 상등급을 따냈으나 10등급9명, 11등급5명, 12등급4명, 14등급2명, 15등급3명등 23명이 낮은등급을 차지하는등 심한 불균형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현행내신성적산출방법이 지역격차나 학교격차를 고려하지않으며 같은학교내에서도 문과·이과계학생들의 수가 다르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현상이라고 할수있으나 그격차가 이처럼 심하게 나타난것은 학력고사자체의 출제내용과 방법이 학교교육의 평가방법으로 부적당하지않는가라는 새로운 문젯점을 제기한것이다.

일선교사들은 서울야간고교의 내신성적1등급을 받은 학생의 학력고사성적이 1백65점으로 형편없는가하면 학력고사성적이 3백점이상인 학생이 4~5등급을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것이며 같은 학교내에서도 내신등급이 10등급도 안되는 학생이 고득점자가 되는가하면 1등급학생이 2백점대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입시관계자들은「학력고사성적과 내신성적이 비례관계를 유지하지않는한 내신성적의 반영에 무리가 더심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상관관계유지에 정책적인배려가 절실하다고 입을모았다.
【方政植기자】

최총선택「눈치作戰」
오늘 大入豫備소집 相談室 찾기도

전국72개 전기대학(11개교육대포함)은 22일의 82학년도 1차전형일을 하루앞두고 21일하오 대학별로 지원자 예비소집을 한다.

한편 전기대학에 원서를제출한 전국24만수험생들은 대부분 이미 지원한2개의 대학가운데 1개대학을 선택, 최종전형에 응해야하는데 20일까지도 최종선택을 못한일부 수험생들은 출신고교와 입시전문학원등을 돌며 최종상담에 바빴다.

일부 학부모들은 미아리등지의 점성가를찾아 학교선택을 묻기도했는데 1일평균5~6명의 학부모들이 찾아와 복채5천원을놓고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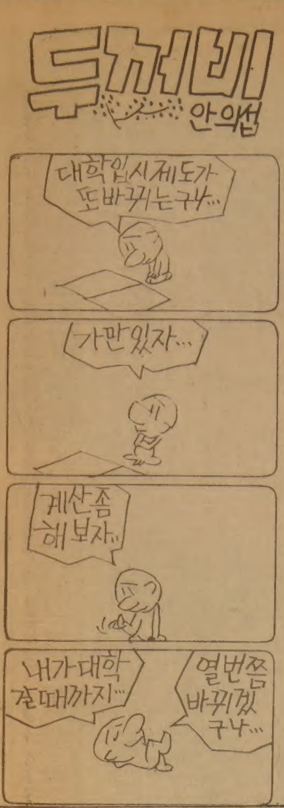
한편 대부분의 고교들은학생들의 지원대학을 철저히보안, 같은 고교출신 수험생들끼리도 최종응시교를 알수없도록 하고있는데 21일 대학별 예비소집이 이같은 눈치작전의 피크가 될것으로 보인다.

오토바이申告、50cc도
道路운송法 시행규칙改正 뺑소니根絶위해

교통부는 교통사고후 도주차량에 대한 근절대책의 하나로 오토바이(2륜 소형자동차)사용 신고범위를 일부확대하는것을 내용으로한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종래 2륜소형자동차는 총배기량이 85cc이상인것에 한하여 사용신고를하도록 의무화되어있었으나 이번규칙 개정으로 그범위가 50cc이상으로 확대된것인데 대상오토바이는 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않으면 운행할수없도록 돼있다.

현재 사용신고된 총오토바이댓수는 27만4천6백61대에 달하고있으나 이번조치로 9천대이상의 오토바이가 추가신고될것으로 보인다.



가정집 복면강도 세든사람이 잡아

20일 상오6시20분께 서울鍾路區明倫洞1街36의4 史在善씨(44·상업)집에 복면을한 20대강도 嚴泰星씨(21·연탄배달원)가 칼을들고 들어온것을 이 집에 세사는 權貞熙씨(39·한양유업종구대리점주인)가 격투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범인 嚴씨는 흰와이셔츠로 얼굴을 가리고 식칼을 든뒤 史씨집 담을 넘어 부엌을 통해 내실로 들어가려다 인기척에 수상히 여긴 史씨의 장모 姜景乙씨(57)에게 발견됐고 姜씨는 때마침 출근길에 나서던 건넌방 權씨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權씨는 부엌앞통로에 숨어있다 嚴씨를보고 달려들어 왼손으로 칼날을붙잡고 10여분간 격투를 벌인 끝에 嚴씨를 검거한것.

具士雄씨 保釋허가 慶山열차 추돌事件

【大邱=聯】大邱지법 형사합소2부(재판장 宋鎭勳부장판사)는 20일 慶山열차추돌사고와 관련,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은 전慶山郡孤山面 산업계장 具士雄피고인(38)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具피고인과함께 보석신청을한 제116특급열차 전기관사 文昌星피고인(47)에게는 이유없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安斗熙씨 出國정지
美移民수속 알려져 各界진정

白凡 金九선생 암살범 安斗熙씨(64)에 대해 출국정지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가 19일 내린 이조치는 安씨가 미국에 이민가있는 가족들과 합류하기위해 이민절차를 밟고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출국을 정지시켜야한다는 사회단체들의 진정이 잇달아 내려진것이다.

대학생 飮酒후 歸家길에 凍死

19일상오8시께 서울中區巡和洞 梨花여고후문옆 골목길에서 경남대학병설전문대학기계설계과1년 權載植군(21·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1의101)이 숨져있는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權군은 지난18일하오 9시30분께 西大門로터리근처 생맥주집에서 학교친구인 朴正欽군(21)과함께 맥주를 마시고나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 보행위반으로 서울西大門경찰서 天然파출소에 연행됐다가 신분이확실해 비보호조치로처리돼 이날밤11시께 풀려났었다.

경찰은 權군이 귀가도중 술에취해 쓰러져 영하10도의 추운날씨로 동사한것이 아닌가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술취한 洋服工도

20일 상오7시15분께 서울道峰區彌阿2洞791의86 金진영씨(39) 집앞 골목길에서 金씨의 이웃집에 하숙하고 있는 金永喆씨(24·양복공)가 숨져있는것을 순찰중인 彌阿2동파출소 閔연수경장(35)이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金씨가 전날밤늦게까지 동료들과함께 술을 많이 마신점등으로 미뤄 귀가하던중 골목길에 이르러 집을 찾지못하고 웅크리고앉아 잠이들어 동사한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고드름과 연산홍이 정답게

大寒인 20일 서울 昌慶苑식물원 유리창밖에 고드름이 길게 내리뻗쳤다. 추운날씨를 이기려는듯 방한복과 마스크까지하고 온 소년형제의 눈망울속에서 실속에 활짝핀 연산홍을 바라다보는 봄이 소리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수있다.

핸드백 소매치기90回
千5百만원털어 20代등 5명令狀

서울시경은 20일 백따기전문소매치기단두목 廉圭文(24·전과4범·江西區鹽倉洞문화연립주택103호) 부두목 鄭在羽(28·전과8범·京畿坡州郡條里面奉日川4里80)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12월15일 소매치기단을 조직, 지난 15일하오8시20분께 鍾路2街횡단보도에서 高모양(19·公州師大1년)의 핸드백에서 4천원을 소매치기하는등 지금까지 1개월동안 90여차례에 걸쳐 1천4백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소매치기했다는것.

이들은 지난18일 하오5시께 鍾路區觀水洞 모다방에서 소매치기한 금품을 분배하려다 정보를 미리입수, 출동한 경찰에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검거될당시 다방재떨이와 의자를 마구던지는등 40분동안 반항하다가 경찰이 최근지급받은 가스권총 4발을 발사하자 모두 붙잡혔다.

蔚山工團주변 農作物·果樹피해
2억5천만원 補償

【蔚山=聯】蔚山공단주변의 공해로인한 농작물및 과수피해보상 분담금액이 68개 공해업체에 총2억5천7백39만원으로 확정됐다.

20일 蔚山市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蔚山공단주변 2천85가구의 논·밭과 과수원등 1백38만8천3백55평에 대한 지난해 1년동안의 피해정도와인근 각공장별 가해정도를 지난해 3월1일부터 11월말까지 9개월동안 분석, 영남화학등 68개 업체가 총2억5천7백39만7천7백69원을 보상하는것이 옳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蔚山市는 이통보에따라 가해공장들로부터 오는 23일까지 보상금을 징수, 24일부터 피해농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공부지 편입으로 지난80년의 1백73만1천4백58평보다 34만3천1백3평이 줄었고 보상액도 1천2백26만4천8백10원이 줄어들었다.

誠信女大 총장에 趙圻洪박사 承認

문교부는 20일 誠信女大 총장에 趙圻洪박사(73·전誠信女大학장·사진)의 취임을 승인했다.

82학년도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誠信女大의 학원이사회는 작년10월26일 趙박사를 총장으로 선임했었다.

포근한날씨 되찾아 오늘부터
全國이 平年보다 2~3度 높아

대한(大寒)인 20일을 고비로 강추위가 물러가고 전국이 평년보다 2~3도높은 포근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중앙기상대는 20일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후 차차맑아지겠으며 중부지방과 호남·제주지방에서는 한때 눈이 내리겠으며 전해상에서는 파도가 다소일겠다고 예보했다.

이에따라 21일 최저기온은 서울지방이 영하6도, 중부지방이 영하6~9도, 남부지방이 영하2~6도의 분포를 보일것같다.

한편 대한인 20일 서울지방이 영하11·8도, 鐵山 영하15·2도, 淸州 영하16·9도, 全州 영하11도, 光州 영하7·6도, 釜山 영하5·9도로 濟州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영하의 강추위로 예년보다 3~5도가량 낮은기온이었다.

獨立유공 李載詳옹

독립유공자 李載詳옹이 20일상오9시45분께 서울東大門區里門洞135의36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3세.

李옹은 지난35년 중국으로 망명한뒤 민족혁명당에입당, 독립운동을하다 38년 왜경에게 체포돼 2년동안 옥고를 치르기도했다.

발인은 22일상오10시 里門洞 천주교회에서있으며 장지는 경기抱川郡蘇屹面 松隅里천주교묘역. 연락처 967-6483

대낮 女湯천장 무너져 대피소동 9명 重傷입어

○…20일 낮12시10분께 부산中區寶水洞2가89 보수목욕탕(주인 金점염·54·여)여탕에서 천장이 내려앉아 목욕하던 文난이노파(72)등 9명이 중상을입고 인근병원에 입원중이나 3명은 중태다.

○…이날 여탕에서는 30여명이 목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욕탕천장의 타일이 쏟아져 내린뒤 천장이 무너지면서 목욕하던 사람들을 덮쳐 일부 목욕객이 부상을 입었으며 20여명은 긴급대피소동을 벌였다는것.

○…사고가난 목욕탕은 6년전에 새로지은 연건평90평짜리 3층건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 3층은 가정집으로 사용해왔는데 경찰은 천장을 받치던 나무가 썩어 내려앉은것으로보고 주인金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있다.【釜山=聯合】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美術 「82國際현대작가 판화전」

「82國際현대작가 판화전」이 27일부터 2월2일까지 珍화랑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미로, 달리, 뷔페, 토울리, 보비아스, 브라질리에, 사로와, 아이즈피리등 21명의 외국작가와 韓默, 金鳳台등 국내작가 2명의작품이 전시된다.

◇아이즈피리의 판화

대학생 광고논문展 李政伯·李明天뽑혀

제일기획(대표 金德寶)이 주최한 제3회 대학생광고논문공모에서 中央大 李政伯군(廣告學科3년)의「소비자행동과 광고전략」과 李明天군(광고학과4년)의「해외시장확대에 있어서 국제광고의 역할」이 각각 우수상(상금30만원)으로 뽑혔다.

한국 아동문학상 金完成·曺平圭씨

한국아동문학가협회제정 제8회 한국아동문학상 수상자로 동시부문에 金完成씨(사진·수상작「비누방울」), 동화부문에 曺平圭씨(사진·수상작「상을린」)가 각각 선정됐다. 고료는 30만원, 시상식 18일하오3시 서울 만나회관.

서울대학교동창회
신년파티및정기총회

1982년도 신년파티및 정기총회를 아래 요령으로 갖고저 하오니 동문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때 : 1982년1월30일(토)오후6시
곳 : Hotel Triumph(Keele St× 401북쪽)
참가비 : 커플 : $50 싱글 : $30
※참가통고를 다음 준비위원이나 운영위원에게 해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읍니다.
배찬규 : 270-3353, 정우섭 : 270-2663
김동수 : 270-5515, 송경란 : 492-7710
이창수 : 1-579-3684(Whitby)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나다지부운영위원장
이 창 희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히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 인 회 계 사
김 인 규 배

구 정

구정을 맞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바랍니다.

전통의 한국고대가구점
부 일 가 구
230 YORKLAND BLVD.
MR. WONG 498-6953

한국일보 소매처 지방으로 뻗쳐

◆아래 한국 식품점에서 본 한국일보를 판매합니다.◆

●위 니 펙 :
이사벨·마켓
74 ISABEL ST. ☎ : 783-8083

●에드몬톤 :
L & K 동양식품
7729-85 ST. ☎ : 466-8917

●캘 가 리 :
아리랑 캘가리식품
#11, 3012-17 AV. S. E.
☎ : 272-1818

■ 한국일보는 이민생활의 동반자.
■ 풍부한 생활정보는 발전의 촉진제.

「9人의 無法者」를 통해 본 伊의 테러리스트系譜

▲지안지아코보·펠트리넬리=72년 밀라노 교외에서 高壓電柱를 폭파하려다 폭사。「이탈리아의 카스트로」를 꿈꾼 재벌출판인。「닥터·지바고」를 소련에서 가져와 출판한것으로 유명。68년 歐洲를 휩쓴 학생봉기의 배후자 였으며 71년 서독의 붉은군대、IRA、PLO、스페인 바스크당과 연결하는 게릴라 조직의 국제화를 노렸다。붉은 여단은 그를 「혁명의아버지」라고 불렀다。22회나 체코의 게릴라 훈련소에 갔었다。

▲안토니오·네그리=79년 체포되어 수감중。파두아대학의 정치학교수로 「마르크스를 넘어선 마르크스」라는 책을 썼다。이탈리아의 社會主義化를 위해서는 테러이외의 방법이 없다는 테러리즘의 이론가。71년9월 로마의 예수파 대학에서 테러지도자들을 모아 「大組織」을 구성하고 붉은여단、戰線등에 自治權을 주어 어디서나 테러를 벌이도록했다。

▲칼로·피오로니=78년 체포되어 수감중。북부 이탈리아의 한 고등학교 언어학 교사였다。68년 대학생봉기후에 『우리는 모든일에 오류를 범하고있다。늦기전에 革命이 필요하다』며 「노동자의 힘」이란 테러단체를 조직。그의 친한친구 칼로·사로니오의 납치 살해후 번민에 싸여 법정에서 이탈리아의 테러 「大組織」을 폭로했다。그는 「피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납치극」은 없어야 한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지우스티노·부오노=마피아단의 北伊派단원。청부살인 전문가。78년 피오로니와 함께 잡혔다。프랑스 外人부대출신으로 테러리스트로부터 청부를 받아 여러 납치、살인에 가담。알도·모로 수상살해에도 가담했다。피오로니의 친구 사로니오납치살해의 주범。『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테러단원위에는 더 큰 조직이 있다』고 그는 폭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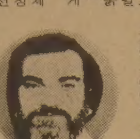
▲바레리오·모루치=붉은여단의 로마分隊의 지도자。모로수상 납치살해기도。79년 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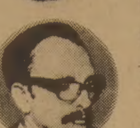
▲파트리지오·페치=80년 붉은 모로사건으로 잡힌 붉은여단 트린友隊長。붉은여단이 KGB 지원하에 체코의 게릴라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음을 폭로。또한무기는 팔레스타인을통해 가져왔다고밝혔다。붉은여단으로부터 변절자로 낙인찍혀 兄이 살해당했다。

▲안나·마리아·그렌지(女)=베를린 출신으로 펠트리넬리의여비서였다。스위스 취리히에서 책방을 경영하며 국제테러리스트본부를 맡아 연락과 무기구입을담당했다。75년 3월에 스위스경찰에 잡혀 이탈리아에 넘겨졌지만 석방됐다。그녀가 접선한 국제테러리스트조직은 伊、西獨、佛、스페인、北아일랜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南예멘 이집트등에 걸쳤다。

▲지오반니·센자니=붉은여단의 로마派를 이끌고있는 두목급 테러리스트。최근의 납치사건의 배후조종인물로 테러리즘의 정통이론가。前플로렌스대학범죄학교수。지난9일 로마의 한아파트에서 체포돼 현재 심문중。

▲프란카·무시女人=로마派행동대원으로 도지어납치사건후 북부이탈리아지방에서 열린 붉은여단비밀회의에 참석한후 센자니에게 메시지를전달하는 임무를띠고 로마로잠입한후 체포되어심문중。


◇센자니


◇펠트리넬리

◇무 시

◇그렌지

세계가 戰慄…「5角의 붉은별」

伊테러組織 「붉은旅團」을 解剖한다

뉴스診斷 外信部 朴涌培차장대우

「붉은 旅團」(BRIGADE ROSSE)의 도지어 장군(NATO남부사령부 군수참모) 납치사건은 極左 테러리스트들이 凡常한 人間들과는 결코 軌를같이하지 못하고 平行線上을 달리는 폭력집단임을 실증하고있다。

남편을 빼앗기고 2일만에 텔리비전에 나타난 도지어부인 주디스여사는 『남편은 우리집안의 대들보 입니다。짐!당신이 저를 본다면 꼭 돌아오세요。우리는모두 무고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읍니다』하며 눈물지었다。

남편을 데려간 붉은여단의 답변은 아내의 눈물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그들이 살포한전단에서 50세의 장군은 붉은 5각형별 아래 눈자위에 멍이 든채、여지껏 명예이던 미국육군군모를 부정하는 「미 제국주의자의 돼지」라는 푯말을목에걸고 있었다。붉은여단이 越南에서 탱크부대장으로 용맹을 떨쳐 銀星무공훈장까지 탄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이 장군을 「人民감옥」에서 신문했다는 내용도 그가 살아온 일생을 부인하는것이었다。

『붉은 여단을 알았는가?』

『테러단체인줄은 알았다。NATO가 당신들의 적인줄은 몰랐다。』

『당신을 납치한 이유는 당신이 군권력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의 해방투쟁과 혁명및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방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도지어는 『당신은 바로 그런방해자의 공범이다』라는 붉은여단의 판결에 『무어라고?』하며 놀라와 했다는 것이다。

작년12월17일 저녁6시께 근무를 마치고 귀가해 식탁앞에 앉은 도지어준장은 장군이기전에 凡常한 한 인간이었다。그는 아무런 의심없이 가스관을 고치러왔다는 4명의 배관공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그때문에 쉽게 납치됐다。로마 테러수사본부 副부장 리코라·시모네는 그러나 달랐다。

시모네는 도지어 납치사건을담당했는데 지난1월6일 저녁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우편배달부를 보자 도어의 쇠줄을 풀지않고 배달부를 쳐다봤다。우편 배달부는『아! 이자가 내가 누군줄 아는구나』하며 권총을 쏘아댔다。시모네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건졌다。

하루 한건이상 테러사건이 발생하는 이탈리아에서 사는 凡人들은 시모네같이 예민하기에는너무 大凡하다。일부 정치가나 치안관사를 빼놓은 일반인들은 테러분자와는 또다른 平行線 위에서 생활하고있다。

「정치적 테러주의」의 저자인 폴·윌킨슨(英國칼디프大學교수)은 정치적 격동이 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極左테러는 활개를 친다고 분석한다。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인권、종교、군부、전제등의 위기에 처할때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지지의 감소를 우려해 강경책을 쓰지않기 때문에 테러는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윌킨슨 교수는 비 성숙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테러가 발생하면 全體主義로 우회전해 난국을 수습하지만 이탈리아 같이 성숙기의 민주국가에서는 수습이 힘들다고 풀이하고 있다。

소위 테러연구 전문가들은 『왜 테러가 일어나는가』의 발생론에 치우친 革命學의 일분야로 많은 서적을 내놓고 있지만、81년 발간된 클래어·스털링(女·미국 言論人)의 「테러망―국제테러주의의 비밀전쟁」은 『테러를 왜 못 막는가?』의 측면을 강변하고있다。

스털링 여사는 이탈리아가 테러의 과열지대가 된것은 이탈리아인들의 『폭력에 대한 凡常』의식、이탈리아 정치인들의 左翼경향、西歐 최대의 공산당인 이탈리아 共産黨의 右傾化등이 테러리스트에게 『革命의 시기는 무르익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要員은 거의 幻想的정신

財閥·敎授가 한때지원…露의「地獄」에도 뿌리

최근엔 伊 정부서도 蘇 KGB의 관련비난

스털링 여사는 이탈리아 테러의 족보가 1866년 러시아혁명때 「지옥」이란 테러단체를 이끈 니콜라스·이수틴의 노선을 계승한 悠長한것이라고 표현하고있다。

윌킨슨 교수는 革命的 테러조직이 발생하자면▲조직▲이념▲지도자▲정부조직과유사한기구▲무기▲비밀활동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는데 이탈리아의 테러는 이런 5大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문제의 붉은 여단의 탄생과정을 보자。후원자로는 이탈리아대재벌 지앙기·펠트리넬리、이론가로는 정치학교수 네그리、훈련담당으로는 체코의 게릴라 캠프가 있었다。무기는 中東、소련의 지원으로 충당되어 5대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것은 테러리스트들이 환상적인 지적 감수성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이탈리아 테러의 「大組織」중의 하나인 포토프(POTOP=노동자들의힘)의 우두머리인 카로·피오로니는 78년 법정에서「대조직」의 계보를 밝히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로서 납치살해단을 조직한것은 잘못이었다。나는 무장운동의 자금을 위해서는 가장 친한 친구도 죽여야 했다。그 친구와 함께 속삭였던 하늘의 어느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될것이 아닌가』

그의 절친한 친구 칼로·사로니오를 납치、살해한후 밝힌 모순된 변명이었다。

主義를 위해 친구도 죽이는 환상적 정신상태로 이들은 세상을 보고있다。때문에 이들의 이념적세계는 凡人의 세상과는 동떨어진 평행선상에 놓이게 마련이다。

좌익테러를 자주하면 이탈리아 정권이 오히려 우경화할 것임을 알고도 이들은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바로 이 우경화가 그들이 주장하는 혁명의 성숙기라는 변증법적 논리에서다。

도지어 납치사건후 이탈리아 정부는 처음으로 테러배후에KGB가 있다는등의 강경 발언을했다。

압수된 문서에 따르면 붉은 여단은 1월22일 집권 기독교민주당을 TV가 중계되는가운데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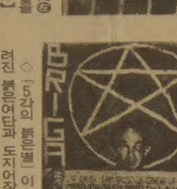
테러리스트와 지배층간에는 평행선이 엄존해 있다。

◇붉은여단에 납치된 도지어장군의 부인 주디스·도지어女史㊧가 베로나의 자택발코니에서 딸 체릴㊨과함께 남편의 무사귀환을 빌며 애써 평상적인 표정을 써보이고있다。【AP】

붉은旅團의 惡名史

70년 쿠르치오가 共産主義武裝革命집단으로 創團

前首相비롯 殺人百여건에 人質납치劇도 百여차례


◇「5각의 붉은별」이 그려진 붉은여단과 도지어장군。

1970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비두행상이던 르나토·쿠르치오(78년체포·복역중)가 창단한 자칭 공산주의자 무장혁명집단。도지어의 목에걸어 공표한 판결문 위에 보이는 「5각의 붉은별」이 상징이다。社會學을 연구하고싶어했던 쿠르치오는 70년 아내 마르카리타·카골(78년 脫獄중 사망)과 밀라노의 한 백화점을 털어서 얻은 25만 달러로 테러단체를 조직했다。

그는『이탈리아는 정치적 혁명의 성숙기에 도달해 있다』면서 창단 6개월만에 시멘스회사의지배인을 납치、「붉은 5각형별」이란 포스터를 목에걸어 사진을 찍어 세상에 돌리면서 그첫사업을 시작했다。그후 피아트자동차 지배인、판사 마리오·소씨등을 납치、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78년까지 戰線、NAP(무장프롤레타리아核)등의 極左테러리스트와 함께 1백여건의 殺人、1백여건의 인질납치사건을벌였다。

78년검거된 쿠르치오는 탈옥했다 아내를 잃고 다시 잡혔다。그러나 붉은 여단은 더 큰 계획을 꾸몄다。이탈리아 共産黨과 聯政을 추진하던 알도·모로수상을 납치、55일만에 시체로 돌려준것이다。「붉은여단」은 지도자와함께 3백64명의 단원、1천여명의 테러리스트를 정부측에 빼앗겼지만 그들의 석방을 위해 계속 테러를 벌였다。

무엇보다 잔인한것은 붉은여단 계보를 폭로한 파트리지오·페치의 형을 총격 살해한후 그의 애인 위안부집 쓰레기통에 시체를 버린 보복이었다。

붉은여단은 戰線등과함께 이탈리아 전체 테러 「대조직」의 한 網으로 베네치아、밀라노、로마、나폴리에 지부를 두고있다。

이번 도지어사건은 4개지부가운데 매파에속하는 베네치아지부의 짓으로 보인다。

붉은여단 창설자 쿠르치오는 감옥에서『노동자들의 테러공격에 대처해 자본주의자들이 정부의 권한과 군대의 강화를 꾀할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어떤 강화수단이 동원되어도 시민과 정부를 유리시키기 위해서는 테러가 필요하다』고 술회했다한다。

"希望은 깨졌다… 그러나 人間精神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母國 폴란드를 보는 亡命詩人 밀로즈의 感懷

80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출신 시인 체슬라프·밀로즈는 현재 모국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惡의 勝利」라고 표현할수 있으나 폴란드 자유노조운동으로 비롯된 「희망」은 영원히 인류의 가슴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60년에 미국에 이민,현재 美하버드大에서 슬라브語文學을 강의하고있는 밀로즈는 작년6월 모국을 방문,바웬사를 비롯한 노조지도자들과 만나기도했다。에세이집 「샌프란시스코만에서본시각」과 소설 「권력의 강탈」등이 금년중 발간될 예정이다。다음은 유에스뉴스앤드월드 리포트誌 1월25일자에 발표된 밀로즈의 글이다。

유럽에 있는 우리고향사람들은 세계를 善과 惡의 두 개념으로 바라본다。폴란드는 일찌기 나치治下를 겪었고 그후로도 공산당의 지배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요즘 폴란드에서일어나고있는 일들이 惡의승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작년6월 폴란드에 갔을때 바웬사를 비롯한 노조지도자들을 만났다。그때 나는 그들에게서 착하고 정직하며 성실함을볼 수 있었다。당시 내가 그들이 섭취한바를 자랑스럽게 생각한것은 당연했다。

요즘 그들이 겪는 패배는 비굴하고 용렬한 사람들、부당한 착취자들、권력을 휘두르고있는 자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자유노조의 노력으로 폴란드에는 엄청난희망이 살아있었다。그 희망은 지금 파괴되어가고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인간의 가슴속에서 근절될수는 없는것이다。폴란드 자유노조운동은 東歐에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운동도 전혀 일어나지못하리라는 비관주의적인 예언에 [illegible] 것임을 밝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내 미국친구 하나가 군부가 정권을 인수하기 조금전에 폴란드를 방문한일이 있다。그는 말하기를『폴란드는 소외당한 사람이없는 나라』라고 했다。미국사회의 특징을 이루고있는 사회계층과 개인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미의단결이 폴란드에는 있었다。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단결할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읽기 쉬운 시를쓰고있다고 생각하진않지만、폴란드 각계각층에 나는 많은독자를갖고 있음을 알게되었다。비교적 난해한 시까지도 그들은 읽고 이해해왔다。내가쓴 시는 15만부나출간됐다。이제 그것은 끝장났다。비교적 검열을 덜받고 행해지던 출판활동이나 자유로운 여론의교환은 끝났다。그러나 인간정신은 남아있다。

군사쿠데타를 위장한 외세의 개입이 폴란드국민을 [illegible]―1981년 12월14일은 68년의 체코사태와마찬가지로 곧 잊혀질 것이다。

오늘날 사건들은 매우빠르게 회전하고 전세계로부터의 이러한 막대한 뉴스들을 흡수해야 하므로 많은 사람들은 잔학한 역사적인 기억까지도 잊어버린다。

그러나 기억의 상실로인해 사람들은 [illegible] 기억의 상실은 [illegible] 새로운 범죄들을 불러온다。

세계에서는 많은 잔학행위가 위장돼 사용된다。

한예로 캄보디아에서는 소르본서 교육을 받고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의해 대량학살이 자행됐다。

그들은 인류를 구제한다고 믿는 그들의 철학적 원칙에따라 잔학행위를 한것이다。

나는 미국사회와는 다른 문화속에서 자랐다。따라서、미국은 판단하기에 매우어렵다는것을 깨달았다。나는 누가 뭐라해도 중부유럽인이다。

성장환경과 정치적직관력으로 판단해볼때 미국친구들이 자유롭다는것은 알게되었지만 사실상 유럽과 미국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지않다。

유럽과 미국을 갈라놓는 큰차이점은 나의 끝없는 [illegible] 대상이다。자유분방한 나의 대학동료들도 항상 [illegible] 관습에 얽매여 있는것처럼보인다。

그들에게 금기사항으로 되어있는 이념과 언어가있다。

예를 하나들어보라면 기꺼이 들어보겠다。

나의 대학동료들은 자유는 실현되기어렵다는 것과 미국생활중에는 황금이 인류의 자유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있다。

영화산업을 예로들어보자。나에게 있어 영화산업은 무시무시한 공포의 대상이다。

나는 내가 영화에 종사하는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것을 떳떳이 말할수 있다。

영화제작자들은 자유롭지않다。그들은 관중을 끌기위해 섹스와 폭력을영화에포함시켜야 한다는주문에 굴복하고 있다。

내몸 가짐중에는 나를보수주의자라 불리게할 아무것도없지만 나는 영화문제에관해 원칙론자들의 입장에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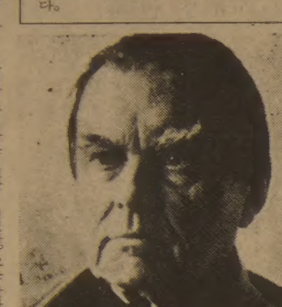
하지만진보적인지식인들은 보수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이 두려워 섹스와 폭력에 대해 언급하기를꺼려하고있다。

나치·共産治下겪은 波국민

世界를 善惡개념으로 파악

自由勞組운동, 나의 悲觀的생각 바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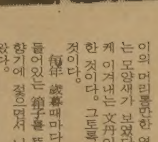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誌】


◇체슬라프·밀로즈

文丹二十年史

千字春秋

崔貞熙 〈作家〉



20년은못됐것이다。14~15년쯤 되지않을까 한다。그러면서 「文丹二十年史」라는 거창한 表題를걸게된 이유는 文丹이 오랫동안 내게 준 영향(기쁨)이 컸던 탓이다。

얼핏 봄에는 文丹이 남국 어디 먼나라에나 있을법한 열매같지만 文丹은 바로 우리濟州道에서 생산되는 것이다。귤과 같은면서 귤이아니고 크기로는 중치의 호박을 연상케 하지만 文丹을 호박에 비하기는 아깝다。돐잡이 우리 修章이 (宋原의아이) 머리통만 하다고해야 文丹의 귀중함이 드러날것 같다。

어느해 겨울에 내가 濟州道를 구경한 일이 있는데 濟州道는 눈이오지않는다더니、오더라도 아주 사뿐 오는둥 마는둥 온다더니、그날의 눈은 온통 天地를 뒤엎기라도 하는듯 아득하기만 했다。

세게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눈이 땅에 내리지 못하고 눈이 虛空을 맴돌고 있었다。바로 길 건너 맞은편 귤밭 모서리에 서 있는 키 작은 文丹나무에 내 視線이 갔을 때 그 작은 나무에 돐잡이의 머리통만한 열매를 달고도 끄떡없이 견디는 모양새가 보였다。아! 저런 모진 시련을 용케 이겨내는 文丹이어서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다。그토록 불가사의한 香氣를 풍기는 것이다。

每年 歲暮때마다 받게되는 文丹을、그것들이 들어있는 箱子를 뜯기전부터 몸속으로 스며드는 향기에 젖으면서 나는 말할수 없는 기쁨을 느껴왔다。

바로 이번 歲暮엔 여느때보다 좀 늦게 여섯개의 文丹이 도착했다。뒤늦게 짤막한 사연이 적힌 글발도 있고—。

"―한 가지에 세개가 달린 文丹이 선생님께로 갑니다。이번엔 市場에 나가 구했읍니다。―"

해마다 西歸浦 駐在記者가 文丹을 알선해준다고 했는데 駐在記者도 新聞社를 나왔다는 건가。崔玄植氏는 재작년 年末에 新聞社편집국장을 그만두게 되었던 것이다。世上事는 이래저래 변화가 많고많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보내온 文丹의 그 불가사의한 香氣는 마르지 않을것이다。

한국男女2回戰에

西獨오픈卓球 부전승으로

제30회西獨오픈탁구선수권대회(21~24일 키엘)에 출전중인 韓國남녀대표팀은 단체전에서 모두 시드배정을받아 부전승으로 2회전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이번대회에는 24개국에서 1백92명의 남녀선수가 출전했는데 中共남녀팀은 출전하지 않았다。

韓國여자팀은 2번시드를 받고 2회전에진출했는데 中共의불참으로 우승이 낙관시되고있다。

한편 개인단식에서 韓國은 西獨프로팀서 활약중인 朴利熙를 비롯 盧閔寬 尹吉重이 부전승으로 역시 2회전에올랐고 여자부서는 허리부상으로 英國오픈대회에 불참한李壽子와 白良美·安海淑·黃南淑·辛庚淑·梁英子·朴未蓮등 7명이 모두 본선에 진출해있다。

西獨오픈서는 지난80년 제29회대회에서 東亞建設팀이 여자단체 2위를 차지한바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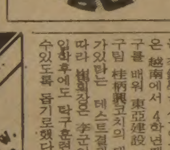
韓·日프로野球

韓國야구위원회 徐鍾哲총재의 특별보좌역인 張勳씨는 오는 26일 日本프로야구위원회사무국장 이하라씨(井原)와 만나 韓·日프로야구협정체결에 관한 실무협의를 갖는다。

日本프로야구의 시모다(下田) 커미셔너、스즈끼(鈴木)센트럴리그회장、후꾸시마(福島) 퍼시픽리그회장대행은지난14일 도오꾜(東京) 긴자(銀座)의 위원회사무국에서 수뇌회의를 열고 韓·日프로야구협정의 조기타결에 합의했다。

韓·日협정의주요내용은 日本내 韓國籍선수의 드래프트지명문제、日本프로에서 은퇴한 선수의 처리、日本프로야구가 韓國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의 규제등이다。

이하라사무국장은『韓國측이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싶다。日本의 의견을 억누르지않고 서로 납득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있다。


프로야구 MBC 청룡의 엠블렘

81년 테니스最優秀

國際聯서 캐쉬選定

【웰번19日AP=聯合】국제테니스연맹은 19일 호주의 패트리크·캐쉬(16)를 81년도최우수 주니어 테니스선수로선정했다。

越南人 도옥여인에

就職알선·學費보조

崔元碩卓協회장

崔元碩대한탁구협회장은20일 패망 越南에서 억류 한국인의 탈출을 도왔으며、80년11월부터 국내에서 두자녀와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越南인 도옥마이(35·잠실3단지 주공아파트357동404호)여인에게 대한항공 여행사에 근무하도록 일자리를마련해주고、두자녀의 교육비를 돕기로 약속했다。

한국인과의 사이에 난아들 李鐘學군(우이국교6년)은 越南에서 4학년때까지 탁구를 배워 東亞建設 여자탁구팀 桂柄興코치의 대성소지가있다는 테스트결과보고에 따라 崔회장은 李군이 중학입학후에도 탁구훈련을 쌓을수있도록 돕기로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 문학,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한국 스키강습회

접수마감 박두 선착순

퀘벡주의 가장 큰 명산 "세넹"으로

* 1월29일(금)오후6시정각출발(브랜돈 스포츠사 앞)하여 31일(일)귀환(2박3일)
* CHARTER WAY 버스여행 7시간
* 회비 : 개인당 $180(개인별로가면 $280 소요), 11세미만어린이 $50
* LIFT FREE, 강습료 FREE 이외에 스키대여료는 별도(하루$10정도)
* 일류 콘도미늄으로 부엌시설 완비(단 음식은 각자 지참해야함. 쌀,밥솥 기타)
* 방은 3BED ROOM UNIT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자중 회비 미납자는 접수가 취소될수 있아오니 조속히 회비납부를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 598-3732(이건영), 533-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 · 한국일보 사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구함.
여자(캐쉬어), 남자(헬퍼)
다운타운 지역임. 시간은 원하는 만큼드림.
오후 7시까지는 ☎ : 368-8138
그 이후는 929-0230으로 연락바람.

장난감, 선물용물건 판매 세일스맨 구함.
기존 또는 새로 버라이어티 가게등을 발굴해
저희회사 상품을 소개, 판매할 세일즈맨 구함.
☎ : 461-3555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오후5시부터 10시까지 근무(서부지역)
261 스칼렐 로드, ☎ : 767-0762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금, 토)에 밤일하실분
구함. (다운타운) 시간 : 오후11 : 00~오전7 : 00
☎ : 977-2299

일요일에 일하실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여자분)구함
정오 12시~오후8시까지 위치 : 다운·타운
☎ : 921-0624

Become Hospital Ward Clerk-Secretary.
$7/Hour. Join 3days training Seminar
☎ : 961-9464

여자 룸 메이트 구함
☎ : 222-3877 (Mrs. 김)

고급코트를 만들수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
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수 있음.
☎ : 859-4366

* 램프, 갓 미싱 집에서 하실분 구함.
* 영어를 하실수 있어야함.
Lamp Boutigue (655 mt. Pleasant Rd.)
☎ : 483-7643, 221-4433

한국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경험이 있으신분을 구합니다.
월, 토(3시~5 시) ☎ : 532-0602

입주하셔서 애기봐주실분
☎ : 431-7168

매매및 양도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 : 481-8443(B), 745-5485(R) 황순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가정사정으로 성업중인 가스바와 버라이어티
가게를 급매코저 함.
년매상 : 가스 바(70만갈론)
주매상 : 버라이어티 스토아($3,150)
위 치 : 하이웨이89×24(Shelburne)
☎ : (519)925-5210 프랭크(오후3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아파트지역 빌딩내 위치)
턱샀과 같음. 해밀톤 시청뒤.
아이들 손님은 없음. 주매상 : $5600. 리스4년+10년
렌트 : $700(전기, 물세포함) 아스킹 : 80,000+스탁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 : 1-527-0025 (박)

스카보로 지역에 있는 두개의Convenience Store
을 팔고자 합니다. 꼭히 관심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니다. ☎ : 686-1890 오전11시~오후3시 MR. LEE

주에 6일간 영업(선물, 옷등 기타)
30년간 해오던 잡화상을 귀국관계로 급매함.
가격 : $10,000 + 스탁(대략 $25,000)
* Penny Pincher Store
* 888 Danforth Ave.
☎ 461-9771 Mr. Lue

— 여자 란제리 판매점 —
다운타운 빌딩안 쇼핑 몰 안에있음.
여자 언더웨어, 나이트 웨어 취급.
장래성이 좋으며, 현재매상 대단히 양호함.
☎ : 363-2601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도나리아(Donnaria)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좋은가게를 구입하실수 있는기회!
1362 St. Claia W. ☎ : 654-7240

오래된 미시사가에 있는 이익높은 꽃집 팝니다.
☎ : (낮)826-1591, (밤)826-3246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 크리닝을 겸해
할수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 (베더스트×로렌스)
오전10시~오후8시 ☎ : 783-013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하우스 렌트

3베드룸(방갈로) 차고있음
마캄·로랜스부근 즉시 입주가능
☎ : 822-4480(Mr. 박)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관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황 석 용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Mr. LEE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
찬장등 가구제작

사 진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쿼링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8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쇄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물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넌따 김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25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8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보광한약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
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9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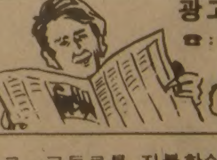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때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토요일도 광고접수
10:00 a.m.-
5:00 p.m.

광고 신청은
☎ :